

북한 지역의 조선 후기~‘근대 초기 (1896~1907)’ 戶籍 자료의 현황과 가치*

- 북한 지역의 集團傳記學 토대 구축을 위한 호적 자료의
기초적 연구(I) -

임학성**

〈차 례〉

- 머리말
- 북한 지역의 조선 후기~근대 초기 戶籍 자료 현황
- 북한 지역 集團傳記學 연구 자료로서의 호적의 가치
- 맺음말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조선시대에 시행된 호적제도 및 호구조사 방식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왕조는 5백 년간 호적제도에 따라 호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물인 戶籍을 작성하였다. 호구조사와 호적 작성은 1392년 개국 이래 1895년까지는 3년 주기로 했다가, 1896년 9월 이후로는 호적제도를 새롭게 변경하여 1년 주기로 변경하였다.

조선시대는 전국적으로 3백 개가 넘는 고을을 두었고, 호적 자료가 균현 또는 먼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한 번에 3부 내지 4부를 成冊하였기에 5백여 년 동안 상당한 분량의 호적이 작성되었던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호적 자료는 1천여 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1896년 이후에 작성된 호적(新式戶籍)은 그 사정이 다르지만, 그 이전에 작성된 호적(舊式戶籍)은 경상도와 제주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연구 또한 이들 지역에 치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일부 남아있는 북한 지역의 호적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2184).

**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자료에 대한 정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연구 또한 미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미국(하와이대) 등에 소장된 북한 지역의 조선 후기~근대 초기 호적 자료는 총 40책으로 파악되는데, 구식호적이 4책(17세기 후반~19세기 중엽에 작성), 신식호적이 36책(1896~1907년에 작성)이다. 지역(道)별로는 경기도가 2개 지역, 강원도가 4개 지역, 황해도가 6개 지역, 평안남도가 5개 지역, 평안북도 6개 지역, 함경남도가 3개 지역, 함경북도가 2개 지역 등, 총 28개(구식호적 4개, 신식호적 25개, 구식과 신식 호적 중복 지역 1개) 지역(郡)이다. 북한 지역의 호적 자료는 구식호적에 비해 신식호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현전하는 북한 지역의 호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소개하면서, 인물에 대한 집단적 연구를 위한 최적의 자료가 호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이 북한 지역의 集團傳記學 토대를 구축하는 동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북한 지역, 戶籍, 舊式戶籍, 新式戶籍, 書誌學, 인물 집단, 集團傳記學

1. 머리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국가는 과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田畝(田租 징수 대상)·家戶(戶貢 징수 대상)·人口(身役 징수 대상)에 대한 조사 규정을 정하여 수행하였다. 그런데 3대 기본 과세 대상 중 전답에 비해 가호, 특히 인구는 그 출생과 사망, 전입과 전출, 流亡 등의 변동이 심하였기에 상대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 규정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호(가호)·구(인구)에 대한 조사 규정은 그때그때의 과세 정책과 사정에 따라 수정·보완되면서 나름 정치한 체제를 갖추어 갔다.

조선시대에 시행된 호적제도 및 호구조사 방식은 그 결과로 드러난 호·구수의 조사 완전성을 논외로 한다면, 나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 정부는 국초에는 고려시대의 호적제도를 거의 襲用하였다. 그러나 점차 국가정책과 상황에 맞게 개혁을 가하였고, 1428년(세종 10)에 이르러 ‘戶口成給規定’과 ‘(准)戶口式’을 마련하면서 호적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이후 세조 때(1455~1468)에 호적제도를 새로 정비하고, 호구조사 방식을 강화하는 작업을 걸쳐 결국 『經國大典』(1485년)에 호구조사와 그 결과물인 호적 작성에 대한 규정과 규칙을 마련하게 되었다.¹⁾

『경국대전』 완성 이후, 여러 차례의 상황 변화와 그에 따른 국가 운영정책의 정비에 따라 호적제도 또한 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수시로 수정·보완하였고, 그렇게 정비된 규정과 규칙을 1746년(영조 22)에 『續大典』(1720년)에 수록하였다.²⁾

이렇게 마련된 호적제도에 따라 조선왕조는 5백 년간 전란과 같은 국가적 위기가 닥친 시기를 제외하면 규정대로 호구조사를 실시한 후 호적을 작성하였다. 호구조사와 호적 작성은 1392년 개국 이래 1895년까지는 3년 주기로 하였는데, 1896년 9월 이후로는 호적제도를 새롭게 변경하여 1년 주기로 하였다.

甲午·乙未 개혁의 일환으로 1896년(建陽 1) 9월 1일 勅令 제61호로 반포한「戶口調査規則」과 이틀 후인 9월 3일 內部令 제8호로 반포한「戶口調査細則」으로 조선의 호적제도는 혁신적인 변화를 갖추게 되었다. 이 새로운 호적제도는 “全國的 戶數와 人口를 詳細히 編籍하여, 人民으로 하여금 國家에서 保護하는 利益을 均霑케 함”(「호구조사규칙」 제1조)이라는 천명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적인 호적제도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정부에서 호적에 기재할 내용을 양식으로 작성, 인쇄하여 각 家戶에 배포하면³⁾ 戶主는 그 양식(즉, ‘戶籍表’)의 빈칸을 채워 기재한 후 관아에 제출하도록 하는 호구조사 방식의 간접성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근대식’으로의 변화였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에 전근대 인신 파악 방식인 ‘職役’을 대신하여 ‘職業’을 기재하도록 한 점,⁴⁾ 그리고 호적

1) 조선 초기의 호적제도 개혁 및 정비 과정에 대해서는 韓榮國, 「朝鮮 初期 戶口統計에서의 戶와 口」, 『東洋學』 1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9; 崔弘基, 『韓國 戶籍制度史(改訂版)』,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97~113쪽 등의 연구 내용을 참조하였다.

2) 『續大典』(권2 戶典, 戶籍條)에 수록된 규정 중 『經國大典』에 없던 새로운 내용은 호적을 ‘式年’, 즉 干支가 子·午·卯·酉 년에 해당하는 시기에 작성한다는 내용이었다. 『경국대전』에서는 단지 3년마다 새로 호적을 작성한다(‘每三年 改戶籍’)고만 하였다.

3) 좌우 2장 한 세트로 인쇄된 호적표 양식 版心 하단에 ‘紙價金四分’ 또는 ‘定價金四分’이라고 인쇄된 것을 볼 때 무상이 아닌 유상 판매였다고 여겨진다.

4) ‘호구조사규칙’은 물론 그 세부 내용을 정한 「호구조사세칙」 그 어디에도 ‘職業’란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호적표 자료들을 볼 때, 이전 시대의 國役 내용과는 다른 ‘士·農·工·商’, 그리고 ‘漁·船...’ 등을 기재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물론 본 글에서도 후술하겠지만, 근대지향적 취지가 무색하게 이전 방식 그대로

자료에 처음으로 家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기재하였던 점 등도 바로 조선의 호구조사 시스템이 근대적으로 이행하는 특징이라 평가할 수 있다. 「호구조사규칙」으로 실시된 새로운 호적제도는 1909년(隆熙 3) 3월에 「民籍法」(法律 제8호)과 「民籍法執行心得」(內部訓令 제39호)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1년 만에 폐지되기에 이르렀다.⁵⁾ 근대적 지향을 위한 한국의 호구조사 및 호적 작성 노력이 무산되고, 이제 조선인에 대한 호적 시스템은 일제의 식민통치 수단으로 변모해 갔던 것이다.

여하튼 조선시대부터 「民籍法」이 시행된 1909년 이전까지 작성된 호적 자료는 상당한 분량이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우선 조선시대 고을의 수가 3백여 개에 달하였고, 각 고을이 여러 개의 面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 1895년까지 3년마다 고을 또는 면 단위로 호적을 작성하였다는 점, 1896~1907년 간은 매년 면 단위로 호적을 작성하였다는 점, 호적을 작성할 때 한 부가 아닌 3부(해당 고을, 감영, 중앙) 정도가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생각한다면 대충 계산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근대 초기(1392~1907년 기한)에 작성된 호적 자료는 1천여 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론된다.⁶⁾

이런 가운데 현전하는 대부분의 호적 자료가 제주·대구·울산·단성·언양 등 남한 지역의 것이고, 그에 비해 북한 지역의 것은 드문 편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한 지역의 호적 자료는 1930년대에 처음 四方博이 대구호적 자료를 분석한 논문을 작성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그리고 상당히 연구

국역/직역을 기재한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고 있었다.

5) 1896년 9월 이후 새로 제정된 호적제도 및 그 성격에 대해서는 崔弘基, 앞의 책, 179~187쪽; 趙錫坤, 「光武年間の戶政運營體系에 관한 小考」, 金鴻植 외,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1; 孫炳圭, 「대한제국기의 호적정책-丹城 培養里와 濟州 德修里의 사례」, 『大東文化研究』 4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장경준, 「大韓帝國期 戶籍資料의 基礎的 檢討」, 『博物館研究論集』 12, 부산박물관, 2007; 李正善, 「한국 근대 「戶籍制度」의 변천-「民籍法」의 법적적 특징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5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09; 장경준, 「광무 연간의 호구조사, 그 연속과 변화」, 『역사와 경계』 92, 부산경남사학회, 2014; 이윤진, 「19세기 말~20세기 초 신호적의 자료적 성격에 대한 고찰」, 『奎章閣』 6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등의 연구 내용을 참조하였다.

6) 이는 제주도 지역에서 발견된 戶籍中草 자료(약 6백여 책)를 포함한 추정치이다.

7) 이 논문에서 북한 지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영역에 속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진행되었던 반면, 북한 지역의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더딘 편이며 그나마 2010년대부터 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 소외(?)가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된 기본적인 동인이다. 좀 더 설명하자면 이 논문을 통해 추후 북한 지역의 호적 자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자료를 활용한 연구자 및 성과가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목적이리라 하겠다.

이와 아울러 북한 지역의 인물에 대한 집단적 연구를 위한 기초적 조사가 이 논문 작성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물 집단에 대한 연구방법론을 학계에서는 '集團傳記學(collective biography)'이라 정의하고 있는데,⁸⁾ 사소해 보이는 문서들까지도 취합하고 종합하여 특정 집단의 인적 배경과 영향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그 집단의 실체와 당대의 사회상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이다.⁹⁾ 이는 특정 집단의 각종 명단 및 계보를 작성하고 그것을 분석·활용하여 그 집단의 역사성을 포착하는 작업을 의미한다.¹⁰⁾ 그런 점에서 戶籍 자료는 집단전기학 연구를 위한 최적의 자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대상을 사회적 집단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지역적 집단으로 선택하든지 간에 호적 자료만큼 적절한 내용물을 제공하는 자료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¹¹⁾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전하는 북한 지역의 조선 후기~'근대 초기(1896~1907)' 호적 자료를 정리·소개하는 것과 함께, 일부 호적 자료 중 특이한 부분

8) 집단전기학과 그 연구방법론은 1985년 羅鍾一(『集團傳記學』, 『西洋史研究』 7, 한국서양사연구회)에 의해 처음 국내에 소개되었고, 이후 이러한 방법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가 진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 분야에서는 집단전기학 방법론을 내세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하기 어렵다.

9) 장윤희, 「동아시아한국학의 심화·확산과 해외 한국학의 집단전기학」, 『한국학연구』 6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184쪽.

10) 우경섭, 「한국학에서 집단전기학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 『한국학연구』 74, 2024, 187쪽.

11) 호적에 담겨진 내용이 실체를 다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연구 자료로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평가도 있다. 이 글에서도 후술하겠지만 실제와 어긋난 양상 가운데 하나는 미성년 자녀, 특히 女 兒 인구를 호적에서 대거 누락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호적 자료가 신분 판별과 함께 국가의 재정 운용과 사회 통제를 위해 작성된 자료라는 그 기본 성격을 이해한다면, 굳이 그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까지 부정할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조선시대 작성된 그 어느 자료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주민들과 다양한 신분층을 수록하고 있는 자료는 여전히 호적이 최상, 최적이기 때문이다.

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지역 호적 자료의 가치를 알리고, 더 나아가 북한 지역의 集團傳記學 토대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 삼고자 한다.

본문 서술에 앞서 근대 지향적 호적제도로 전환하는 1896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 작성된 호적 자료를 ‘舊式戶籍’으로, 1896년부터 1907년까지 작성된 호적 자료를 ‘新式戶籍’으로 구별하여 칭하기로 한다.

2. 북한 지역의 조선 후기~근대 초기 戶籍 자료 현황

조선왕조는 300여 개 고을에서 3년마다(1896년 이후는 매년) 호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물인 호적을 수많은 생산한 역사상 보기 드문 국가였지만, 아쉽게도 현재 전하고 있는 호적 자료는 지역별로도 110개 고을(‘舊式戶籍’과 ‘新式戶籍’에서 중복되는 12개 고을 제외), 그 수량도 1천여 책에 불과하다. 먼저 ‘구식호적’의 경우 총 39개 지역의 자료가 전하고 있는데(〈표 1〉 참조), 북한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강원도의 金化와 伊川, 평안도의 中和(남도 소속)와 渭原(북도 소속) 등 4개 지역에 불과하다. 나머지 35개 지역에서는 경상도의 것이 약 56%, 전라도의 것이 약 23% 등으로 편중되어 있다.

〈표 1〉 현전 ‘舊式戶籍’의 지역별 분포 현황(戶籍中草 포함)

道名	郡縣名 * 水軍 獨鎮 설치 島 포함
	漢城府 北部
경기도	仁川 永宗鎮(島)
경상도	大邱, 蔚山, 晉州, 金海, 尙州, 巨濟, 河東, 陝川, 泗川, 寧陽, 山淸, 丹城, 彦陽, 昌寧, 昌原, 鎭海, 安義, 漆原, 開寧, 興海, 東萊, 慶州 (22개 지역) * ‘구식호적’ 현전 지역의 약 56% 분포
전라도	海南, 谷城, 鎭安, 光陽, 雲峰, 金溝, 大靜, 旌義, 康津 靑山鎭(島) (9개 지역) * ‘구식호적’ 현전 지역의 약 23% 분포
강원도	原州, 華川, 金化, 伊川 (4개 지역) * ‘구식호적’ 현전 지역의 약 10% 분포
평안도	中和, 渭原
계	총 39개 지역(100%)

이에 반해 ‘신식호적’은 총 91개 지역의 자료가 전하고 있으며, 전국적 분포

를 보이고 있다.¹²⁾ 특히 구식호적에서는 강원도와 평안도의 4개 지역에 불과했던 북한 지역이 경기도(2개 지역)¹³⁾ · 강원도(3개 지역)¹⁴⁾ · 황해도(6개 지역) · 평안남도(4개 지역) · 평안북도(5개 지역) · 함경남도(3개 지역) · 함경북도(2개 지역) 등, 총 25개 지역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표 2> 참조). 물론 신식호적에서도 남한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66개 지역(약 72.5%)으로 나타나 여전히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약 27.5%), 이전 시기에 비해 연구 지역을 크게 확장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표 2> 현전 ‘新式戶籍’의 지역별 분포 현황

道名	郡名	道名	郡名
	漢城府 (署 기준 5개 지역)		
경기도	仁川, 通津, 金浦, 廣州, 龍仁, 楊州, 坡州, 漣川, 開城, 豐德 (10개 지역)	경상남도	密陽, 蔚山, 東萊, 昌寧, 巨濟, 居昌, 草溪, 彦陽, 丹城, 宜寧 (10개 지역)
충청북도	淸州, 報恩 (2개 지역)	강원도	江陵, 春川, 楊口, 三陟, 淮陽, 伊川, 通川 (7개 지역)
충청남도	公州, 扶餘, 韓山, 瑞山, 唐津, 燕岐, 海美, 泰安, 林川, 恩津, 鴻山, 大興, 藍浦, 鰲川 (14개 지역)	황해도	黃州, 海州, 谷山, 鳳山, 殷栗, 甕津 (6개 지역)
전라북도	全州, 珍山, 扶安, 茂朱, 高敞, 鎭安, 古阜 (7개 지역)	평안남도	德川, 順川, 陽德, 孟山 (4개 지역)
전라남도	光州, 海南, 靈光, 求禮, 長興, 寶城, 南平, 昌平 (8개 지역)	평안북도	義州, 定州, 博川, 慈城, 龜城 (5개 지역)
경상북도	尙州, 慶山, 漆谷, 義興, 醴泉, 安東, 寧海, 興海 (8개 지역)	함경남도	端川, 永興, 北靑 (3개 지역)
		함경북도	鏡城, 茂山 (2개 지역)
		기타	楚山 江北, 邊界 * 間島 지역
		계	총 91개 지역 + 間島 지역

12) 심지어 압록강 이북 지역인 ‘(西)間島’ 지역에 거주한 조선인들을 호구조사하고 작성한 1902년과 1903년 호적 자료들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북한 지역’에 한정하였기에 간도 지역의 호적 자료들은 제외하였다. 간도 지역의 호적 자료에 대해서는 조일권, 「구한말 간도지방 주민에 관한 일 연구: 1902년도 변계호적의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임학성, 「20세기 초 西間島 거주 朝鮮人の 거주 양태 - ‘邊界戶籍’ 자료의 분석 사례」, 『한국학연구』 21, 2009; 林學成, 「20世紀初「間島」地域居住朝鮮人に対する戶籍調査-韓中間境界の接点-」, 『環日本海研究年報』 20, 日本, 新潟大學現代社會文化研究科 環日本海研究室, 2013; 임학성, 「20세기 초 西間島 거주 移住韓人들의 생활 양태 - “楚山江北戶籍”(1902) 자료의 분석 사례」, 『동북아역사논총』 46, 동북아역사재단, 2014 등의 연구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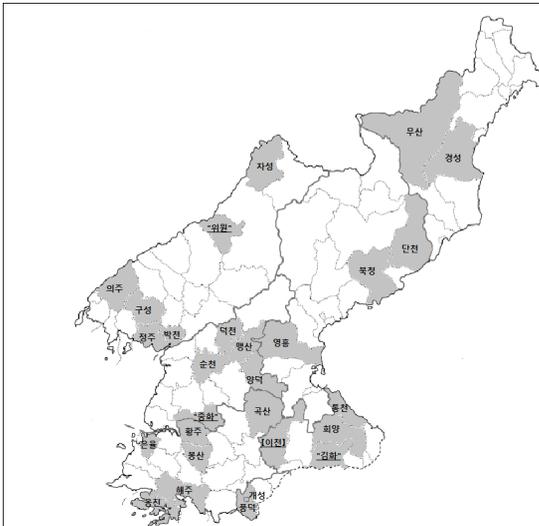
13) 신식호적 자료가 남아있는 경기도의 10개 군 중 북한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開城과 豐德 2개 지역이다. 이 두 지역은 현재 개성직할시 開城市와 開豐郡에 해당한다.

14) 신식호적 자료가 남아있는 강원도의 7개 군 중 북한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淮陽 · 伊川 · 通川 3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현재 옛 명칭 그대로 강원도의 淮陽郡, 伊川郡, 通川郡에 해당한다.

이제 북한 지역 호적 자료를 소개하기에 앞서 자료의 지역별, 유형별 현황 및 그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 <표 3>, <지도>와 같다.

<표 3> 북한 지역 현전 호적 자료의 지역별/유형별 현황

유형 지역	‘舊式戶籍’	‘新式戶籍’
경기도	-	開城, 豐德
강원도	金化, 伊川	淮陽, 伊川, 通川
황해도	-	黃州, 海州, 鳳山, 谷山, 殷栗, 甕津
평안도	中和(남도), 渭原(북도)	德川, 順川, 陽德, 孟山(이상, 남도), 義州, 定州, 博川, 慈城, 龜城(이상, 북도)
함경도	-	端川, 永興, 北靑(이상, 남도), 鏡城, 茂山(이상, 북도)



<지도> 호적 자료가 남아있는 북한 지역의 郡(20세기 초 기준 지도)

범례: 郡 이름 중 “○●”은 구식호적만 남아있는 지역, “○○”은 구식호적과 신식호적이 모두 남아있는 지역을 말함

1) ‘구식호적’ 자료의 현황¹⁵⁾

(1) 1672년 『康熙十一年九月日原襄道金化縣壬子帳』¹⁶⁾

15) 이 논문을 최종 수정하는 도중 한국고문서학회 회장을 역임한 안승준 선생으로부터 본인이 황해도 遼安 지역의 17세기 후반 호적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 여러 여건상 이 글에는 해당 자료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없고, 추후 기회가 닿으면 자료를 분석, 소개하려 한다.

16) 본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Susan Shin, The Social Structure of Kūmhwa County in the Late

미국 하버드대학 燕京圖書館(Yenching Library)에 소장되어있는 호적 자료로 1672년(현종 13) 강원도 金化縣에서 작성한 호적대장 1책의 낙장 일부(총 39면)를 편철한 것이다.¹⁷⁾ 卷首와 卷末이 落張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면의 좌·우측이 떨어져 나갔고, 일부 면들은 상단 또는 하단의 상당 부분이 결락되어있는 등 자료의 상태는 매우 불량하다.¹⁸⁾ 자료의 상태상 확인이 가능한 ‘戶’는 대략 230여 戶 정도이다.

자료 상태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하고 있는 조선시대 ‘구식’ 호적대장 중 五家作統法이 준행되는 1675년(숙종 1) 9월 26일 이전에 작성된 호적 자료라는 점, 아울러 강원도, 더군다나 북한 지역에 해당하는 자료라는 점 등에서 주목할만한 자료라 하겠다.

(2) 1687년 “伊川郡戶籍”¹⁹⁾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청구기호: 古大4258-4)되어있는 조선 후기 강원도 伊川郡의 호적 자료이다. 5戶를 作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일단 이 자료는 1676년 이후에 작성된 호적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자료의 상태는 결락이 심하며 남아있는 분량은 1책 82면이다. 자료의 상태상 확인이 가능한 지역 및 주민은 이천군 上西面(8개 里) · 下西面(13개 里) · 北面(5개 里) · 東面(4개 里) 등 4개 面, 30개 里의 69개 統, 386戶이다.²⁰⁾

Seventeenth Century, Occasional Papers on Korea v.1, 1974(『17세기 金化地域의 社會構造』라는 제목으로 梨花女大 史學科研究室 編譯의 『朝鮮身分史研究』, 법문사, 1987에 수록); 林學成, 『現存 16·17세기 호적대장의 특징들과 新발견 1666년 ‘濟州牧丙午式戶籍大帳’ 斷片』, 『古文書研究』 26, 한국고문서학회, 2005 등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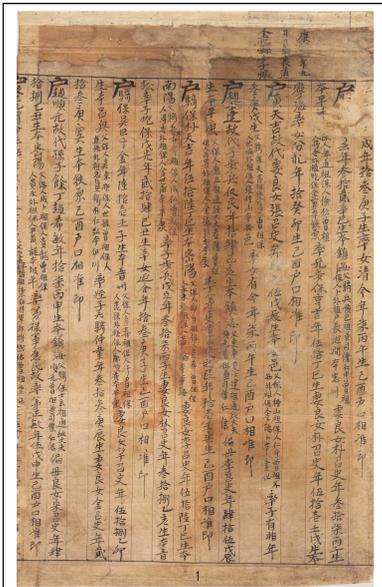
17) 이 자료는 국내 국립중앙도서관이 하바드대학 연경도서관과 자료 교류 협약을 맺어 디지털도서관 디지털자료실에서 원문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18) 전체 39면 중 상단 또는 하단의 파손이 심한 것이 각 7면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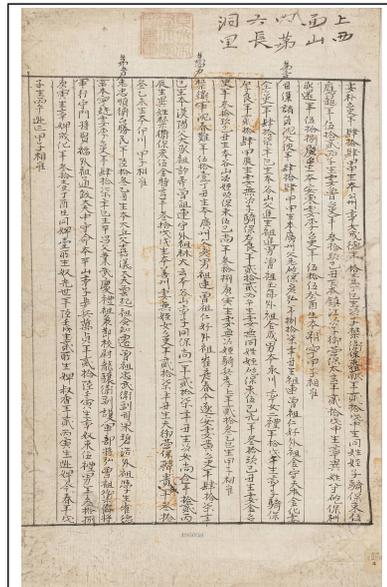
19) 본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邊柱承, 『1-3. 流民戶의 성격 - 江原道 伊川 · 杆城지역 사례분석』, 『朝鮮後期 流民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金友哲, 『17世紀 後半 江原道 伊川의 職役 分布와 東伍軍의 兼役 實態-伊川『戶籍』의 분석』, 『軍史』 36, 국방군사연구소, 1997; 한상우, 『17세기 북강원 사람들: 이천부 호적의 번역과 전산화(강원학 연구보고 12)』,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020 등이 확인된다.

20) 자료에 대한 서지적 비정은 金友哲, 위의 논문, 139~143쪽 및 169쪽 ‘<별표> 伊川『戶籍』의 교정’에서 처음 이루어졌으나, 자료에서 확인되는 統數와 戶數는 한상우(위의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따랐다.

자료의 작성 시기를 알려주는 부분은 결락되었으나, 그 시기를 판정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다. 먼저, ‘魯陵參奉’을 직역으로 기재한 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魯陵은 魯山君(端宗)의 능호로 1698년(숙종 24) 11월 6일 노산군이 단종으로 복위되자 능호를 莊陵으로 추복하였다. 따라서 이 호적 자료의 작성 시기는 1698년 이전 시기가 된다. 다음, 각 호의 말미에 ‘甲子相準’(갑자년에 작성된 호적을 서로 대조했음)을 기재하고 있다. 오가작통제 시행(1675년) 이후에서 1698년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갑자년은 1684년이다. 따라서 이 호적 자료는 그로부터 3년 후인 1687년(丁卯·숙종 13)에 작성된 것이 된다.²¹⁾



〈사진 1〉 1672년 김화현 호적 본문



〈사진 2〉 1678년 이천군 호적 본문

21) 박사학위논문은 작성하면서 이 자료를 처음 분석한 邊柱承도 호적에 기재된 인물의 관력과 문과 급제 사실의 추적을 통해 자료의 작성 시기를 1687년으로 비정하였다(앞의 박사학위논문, 30-31쪽).

(3) 1783년 『乾隆四十八年三月日平安道渭原郡癸卯式年戶籍帳冊』

한국 국립민속박물관 과주관에 소장(소장번호: 민속018736)되어있는 평안(북)도 渭原郡의 1783년(정조 7) 호적 자료이다. 1책 27장 분량으로 社上面坊 獨中里의 주민 354호가 제1통 제1호부터 제71통 제4호까지 등재되어 있다.²²⁾ 자료의 말미에 전체 호와 인구(남/녀별)수를 기록한 ‘都已上’條는 보이지 않으며 渭原郡守의 직함(‘通政大夫行渭原郡守渭原鎭兵馬僉節制使 柳’) 기재 및 署押만이 확인된다.

(4) 1852년 『咸豐二年九月日平安道中和府壬子式年帳籍』²³⁾

일본 東北大學 부속도서관에 狩野文庫로 소장되어있는 평안(남)도 中和府의 1852년(철종 3) 호적 자료이다. 1책 115장 분량으로 古生陽坊 559戶와 上道坊 549戶, 총 1,108戶의 주민이 등재되어 있다.²⁴⁾ 호별 인구수의 분포는 1인과 2인으로 구성된 호가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여 1호당 평균 인구수도 2.2명으로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²⁵⁾ 호적에 등재된 남녀 가운데 호주(1,108명)와 그의 처(876명)가 전체 인구(2,474명)의 약 80%에 달하는 현상도 확인되었다.²⁶⁾ 여하튼 이 자료는 앞에서 소개한 평안(북)도 渭原郡의 1783년 호적과 함께 북한 지역의 호적 중 완전하게 남아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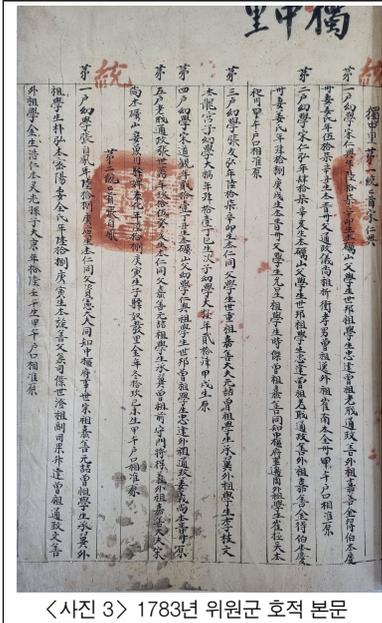
22) 호적 자료와 유사한 시기에 작성된 『戶口總數』(1789년경 편찬) 제7책(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602-v.7) 平安道 渭原 기록을 보면, 社上面坊은 獨中里와 獨上里의 2개 리로 구성되었으며 호수는 650戶였다고 한다.

23) 본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林學成, 「조선 후기 戶籍자료에서 확인되는 巫覡과 廣大·才人들(1)」, 『역사민속학』 2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山内民博, 「1852年朝鮮『平安道中和府壬子式年帳籍』初探」, 『資料學研究』 16, 日本. 新潟大學現代社會文化研究科, 2019 등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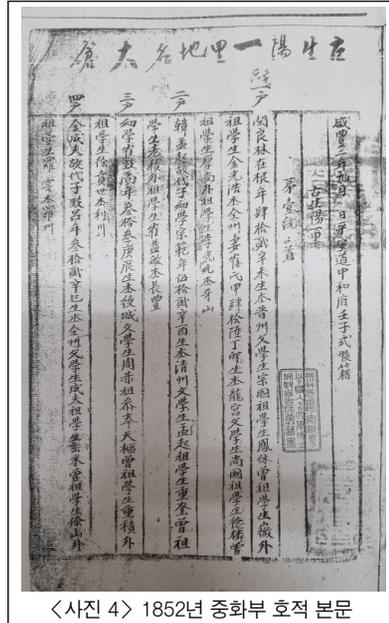
24) 호적 자료로부터 약 20년 후에 편찬된 『關西邑誌』(1871년 편찬) 제14책 「同治十年十一月日平安道中和府邑誌及事例竝錄成冊」(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2168-v.14) 坊曲條를 보면, 古生陽面(坊)에 528戶, 上道面(坊)에 531戶가 거주하였다고 한다.

25) 山内民博, 위의 논문, 19쪽.

26) 山内民博, 위의 논문, 22쪽.



<사진 3> 1783년 위원군 호적 본문



<사진 4> 1852년 중화부 호적 본문

2) '신식호적' 자료의 현황

현재 전하고 있는 북한 지역의 '신식호적' 자료는 총 36책 분량으로 국내 2개 소장처에 2책(황해도 谷山郡, 강원도 通川郡), 일본 7개 소장처에 34책 등이다(〈표 4〉 참조). 국내 소장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각 1책씩이며, 일본 내 소장처는 京都大學 總合博物館(총 18책), 學習院大學 圖書館(총 11책), 이밖에 早稻田大學 圖書館·東京大學 韓國朝鮮文化研究室·一橋大學·東洋文庫·國立歷史民俗博物館 등, 5개 기관에 각 1책씩이다.

<표 4> 북한 지역의 현전 ‘新式戶籍’ 자료 현황

소장처		지역		책수	시기	
		道	郡 / 面(社)			
국내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黃海	谷山 / 鳳鳴面	1	1896년	
	국립중앙도서관	江原	通川 / 碧山面	1	1907년	
	국내 합계			2	1896년, 1907년	
국외 (일본)	京都市 総合博物館	黃海	黃州 / 慕聖坊	1	1905년	
			甕津 / 南面, 龍淵面	2	1905년	
		平南	順川 / 龍浦面, 鳳岫面, 院下面, 雷封面	4	1897년(3책), 1905년(1책)	
			德川 / 金城面	1	1905년	
			陽德 / 化村面	1	1897년	
		平北	義州 / 津里面	1	1905년	
			慈城 / 邑内面 · 館洞面 · 三興面, 閣延面	2	1905년	
		咸南	永興 / 耀德社, 雲谷社, 順寧社	3	1897년	
			端川 / 新滿面	1	1896년	
		江原	淮陽 / 二東面	1	1905년	
		京畿	豊德 / 西面	1	1904년	
		소계			18	1896~1905년
		學習院大 圖書館	黃海	海州 / 東大(公里)坊	1	1901년
	鳳山 / 文井坊 · 鍾巖坊			1	1900년	
	殷栗 / 南面坊 上里(一里)			1	1902년	
	平北		定州 / 海山面	2	1899년, 1900년	
			龜城 / 五峰面	1	1898년	
			博川 / 南面	1	1902년	
	咸南		北靑 / 星垈面	1	1901년	
	咸北		鏡城 / 朱南面	1	1901년	
			茂山 / 邑面社, 龍面社 · 海面社	2	1900년	
	소계			11	1898~1902년	
	早稻田大 圖書館		黃海	谷山 / 雲中面	1	1900년
	東京大 韓國朝鮮文化研究室		平北	龜城 / 内東面	1	1898년
	東洋文庫		京畿	開城 / 南部 都助里	1	1900년
	一橋大	江原	伊川 / 山内面	1	1907년	
	國立歷史民俗博物館	平南	孟山 / 外南面	1	1906년	
국외 합계			34	1896~1907년		
총계				36	-	

그럼 지역별로 호적 자료의 서지적 사항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는데,²⁷⁾ 호적 자료에 기재된 面·里 및 洞의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1899년(광무 3)을 비롯한 19세기 후반기(철종~고종대)에 편찬된 읍지류,²⁸⁾ 그리고 18세기 말 均·면별 호·구수와 里의 현황을 알려주는 『戶口總數』, 1907년의 均·면별 현황과 호·구수를 알려주는 『韓國戶口表』 등을 비교 자료로 활용하였다.

(1) 경기도 지역 자료

현 북한 지역에 속한 경기도의 신식 호적 자료는 2곳(開城, 豐德), 2책이다.

① 開城府 신식호적은 일본 東洋文庫에 소장된 1900년(광무 4) 작성 南部都助里 거주 413戶에 대한 자료인데 (<사진 5> 참조),²⁹⁾ 都助里에는 무려 44개의 洞(訓鍊洞, 惠谷洞, 東谷洞, 東洞, 小東洞, 棧橋洞, 小橋洞, 都橋洞, 廣橋洞, 外夜橋洞, 長木洞, 引鉅洞, 六井洞, 肉井洞, 魚井洞, 造化井洞, 造化洞, 羅洞, 羅分洞, 烏川洞, 棧谷洞, 桂山洞, 上冠峴洞, 上冠洞, 冠峴洞, 掛冠峴洞, 藍泉洞, 接泉洞, 苧洞, 泥洞, 笠洞, 舊笠洞, 草笠洞, 冶洞, 琴洞, 壺洞,



<사진 5> 1900년 開城府 南部 都助里 호적

27) 신식호적 자료에 대한 서술 부분은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구축한 '한국근대호적 DB'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28) 19세기 읍지 편찬의 과정 및 현황에 대해서는 이재두, 「대한제국기 각군읍지와 『읍지대장』, 『奎章閣』 5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1; 이재두, 「19세기 후반 조선왕조의 읍지 편찬」, 『朝鮮時代史學報』 103, 조선시대사학회, 202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9) 『中京誌(開城府誌)』(19세기 말 편찬) 제1책(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0734-v.1) 권2 部坊條를 보면, 개성부는 총 4개 部·13개 面, 123개 里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南部는 都助里·郭莊里·九里介里·旆造井里的 4개 里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玉壺洞, 耒洞, 犁洞, 銅峴洞, 水鐵洞, 酒洞, 酒店間洞, 店間洞)이 등재되어 있다. 이들 40여 개의 동은 행정리에 속한 소위 자연마을로 여겨지며, 최소 1호~최다 60호까지 등재되어 동마다 戶數의 편차가 심한 것이 확인된다.³⁰⁾

개성은 오래전부터 상업이 발달한 지역인 만큼 직업을 ‘商(業)’ 또는 ‘酒商’, ‘藥商’, ‘菜商’, ‘眞油商’, ‘柴商’ 등으로 기재한 호주의 비율이 가장 많이 (전체의 약 45%) 나타나며,³¹⁾ 주거용이 아닌 상점(商業所, 架家商業所, 商業所架, 市業房, 市業架房, 塵房, 藥局 등)인 호도 16호(전체의 약 4%)가 확인된다. 주거용이 아니다 보니 이들 상점 호에는 동거가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여성 호주도 54호가 확인되는데 모두 과부로 추정된다. 이들 여성 호주의 경우 대부분(36명) 직업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일부 여성 호주는 ‘紡績’(4호: <사진 5> 참조), ‘紡’(1호: 물레 따위를 돌려 실을 뽑는 일), ‘績’(5호: 길쌈, 즉 실로 옷감을 짜는 일), ‘針工’(3호: 샅바느질), ‘商’(3호), ‘酒商’(1호), ‘農’(1호) 등의 직업을 기재하였다. 이들 여성 호주의 경우 모두 ‘氏’ 칭호를 기재하였는데, 유독 1명만 전근대 평민 이하 신분의 여성에게 부여한 ‘召史[조이] 칭호를 기재하고 있었다.³²⁾ 한편, 5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49호의 여성 호주 모두 四祖의 성명을 ‘不知(알지 못함)’로 기재한 것은 특이하다.

동거친속에서는 여아 인구(女, 孫女, 曾孫女, 姪女 등)가 다수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남아(미성년의 子, 孫子 등) 인구의 등재 양상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가택 양상은 본인 소유(‘己有’)의 草家에서 거주하는 호가 약 90%나 되었으며, 본인 소유의 瓦家에서 거주하는 호가 약 7%, 타인 소유의 집을 빌린

30) 60호의 최다 호를 보인 자연마을은 棧橋洞이며, 1호 만이 등재된 자연마을은 廣橋洞, 掛冠峴洞, 笠洞, 舊笠洞, 草笠洞, 羅洞, 羅分洞, 小橋洞, 小東洞, 冶洞, 肉井洞, 魚井洞, 棧谷洞, 店間洞, 接泉洞, 造化洞, 酒洞 등 총 17개였다. 이들 1호 등재 마을의 경우 일부는 호적 작성 시 ‘六井洞’을 ‘肉井洞’, ‘造化井洞’을 ‘造化洞’, ‘酒店間洞’을 ‘店間洞’ 등과 같이, 洞名을 잘못 기재하여 나타난 현상으로도 보인다.

31) 반면 ‘農(業)’을 직업으로 기재한 호주의 비율은 약 25%였다.

32) 이 여성 호주의 직업이 바로 도조리에서 유일한 ‘酒商’으로 35세였으며, 棧橋洞 6칸 규모의 己有(본인 소유) 초가에서 혼자 거주하였다. 따라서 과부가 아니라 미혼인 것으로 추정되며, 6칸 규모의 가택은 주막 겸 살림집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借有’) 草家 거주 호가 약 3% 등이었다. 그런데 본인 소유의 와가에서 거주하는 호(30호)의 경우 모두 별도로 본인 소유의 초가를 거주 공간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총 6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1. 경기도’ 참조), 吳星(4편)과 박희진은 商人 호주, 그리고 이정주는 성별과 연령별 인구 구조 양상 등을 연구주제로 삼았다.³³⁾

② 豊徳郡 신식호적은 일본 京都大學 総合博物館에 소장된 1904년(광무 8) 작성 西面 4개 리(擎天里, 中連里, 高尺里, 西倉里) 거주 210戶에 대한 자료이다.³⁴⁾ 각 리별 호수는 中連里가 95호로 가장 많고, 高尺里가 49호, 擎天里가 37호, 西倉里가 29호 등이다.

호주 210명의 직업은 여성 호주 일부를 제외하고 남성 호주(198명) 모두 ‘農(業)’으로 기재되었다. 여성이 호주로 등재된 호는 12호가 확인되었는데, 본인 혼자 또는 미성년의 자 또는 女 각 1명씩과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12명의 여성 호주는 과부로 추정된다. 이들 과부 호주도 모두 직업을 기재하였는데, ‘農’이 2명, ‘紡績’이 4명, ‘績’이 5명, 그리고 ‘紡’이 1명이었다. 이들 과부 호주의 경우 모두 ‘召史’ 칭호를 기재하였으며,³⁵⁾ 1명을 제외하고 11명 모두 四祖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 동거친속에서는 여아 인구가 극히 일부만 기재되었으며, ‘甲午改革’으로 1894년 이후 혁파된 奴婢가 등재된 점은 주목된다. 호적에 등재된 노비 인구는 41세의 ‘婢’ 1명이었다.³⁶⁾

33) 이밖에 개성부의 신식호적 관련 자료로는 京都大學 総合博物館에 소장된 1905년(광무 9) 작성 ‘統表’ 한 책이 확인된다. 통표는 한 개 통으로 편성된 10호의 인적(호주 성명과 동거 가족수) 및 가택(종류 및 칸수) 사항을 한 장의 표에 정리한 것인데, 자료에는 西部 館前里(30개 洞), 北部 城架里(21개 동) · 禮賓里(20개 동) · 梨井里(32개 동) · 池波里(25개 동) 등 2개 部, 5개 리, 128개 동의 통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의 서지 사항은 東洋文庫東北アジア研究班 編, 『日本所在朝鮮戶籍關係資料解題』, 日本 東京. 東洋文庫, 2004, 64쪽에 의거하였으며, 개성부의 통표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는 吳星, 『韓末 開城地方의 戶의 構成 實態 - 인구와 가족을 중심으로』, 『省谷論叢』 23, 성곡학술문화재단, 1992이 확인된다.

34) 『戶口總數』(1789년경 편찬) 제2책(奎1602-v.2) 京畿道 豊徳의 호구 기록을 보면, 풍덕은 총 8개 面, 50개 里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西面은 中蓮里 · 黃江里 · 寺盆里 · 高尺里의 4개 리에 주민 호수는 344호였다고 한다.

35) 반면 동거친속에 등재된 부녀자들은 모두 ‘氏’ 호칭을 기재하였다. 이는 호적 등재 당시 과부가 되어 있었을 남성 호주의 祖母 · 母 등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양상은 같은 과부라고 하더라도, 남성 호주의 동거친속에 등재된 과부와 호주로 등재된 과부와 의 인식 차이가 있었음을 엿보게 해준다.

가택 양상에서는 210호 모두 본인 소유(‘己有’)의 草家로 나타났다. 규모 별 분포는 최소 2칸에서 최대 24칸까지 확인되었는데,³⁷⁾ 2~4칸 규모의 가택이 약 30%(64호), 5~9칸 규모의 가택이 약 48%(101호), 그리고 10칸 이상(~24칸) 규모의 가택이 약 21%(45호) 등이었다.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3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1. 경기도’ 참조), 宮嶋博史는 雇傭人[머슴] 고용 호주, 이정주는 성별과 연령별 인구 구조 양상 등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그리고 박희진은 한말 호적에 보이는 商人 호주 현황을 타지역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자료로 삼았다.

(2) 강원도 지역 자료

현 북한 지역에 속한 강원도의 신식호적 자료는 총 3곳(通川, 伊川, 淮陽), 3책이다.³⁸⁾

① 通川郡 신식호적은 국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1907년(광무 11) 작성 碧山面의 上里와 下里 거주 418戶에 대한 자료이다.³⁹⁾ 상리에는 총 260호가 등재되었는데 관할로 芳坪洞(11호), 回山洞(46호), 島內洞(15호), 地藏洞(25호), 安道洞(10호), 古林洞(29호), 新店洞(13호), 萬橋洞(20호), 新日洞(30호), 芝谷洞(22호), 香泉洞(28호), 中臺洞(11호) 등 12개의 洞이 확인된다. 그리고 하리에는 총 158호가 등재되었고 관할로 初城洞(72호), 次城洞(30호), 長峴洞(23호), 昆巖洞(28호), 龍巖洞(5호) 등 5개의 洞이 확인된다.

36) 상전은 西倉里의 ‘農’ 기재 호주(82세)로 12명의 대가족이 17칸이라는 큰 규모의 본인 소유 초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37) 칸수별로는 5칸 규모 가택이 약 17%(36호)로 가장 많았으며, 3칸 규모가 약 16%(34호), 4칸 규모가 약 12%(26호), 6칸 규모가 약 11%(23호), 10칸 규모가 약 9%(18호), ... 등이었다.

38) 이밖에 북한 지역 강원도의 신식호적으로 일본 學習院大學 圖書館에 소장된 1901년(광무 5) 金化郡 호적이 있는데, 이 자료는 김화군 소재 水泰寺에 거주한 승려 1인을 조사한 僧籍이다. 자료는 승려의 법명과 연령, 세속인 시절의 성과 본관, 사찰 내 건물 용도와 칸수 등을 기재하고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 야마우치 타미히로[山内民博], 「건양·광무기 僧籍과 屠漢籍의 성격」, 『한국학연구』 29, 2013이 확인된다.

39) 『關東邑誌』(1871년 편찬) 제2책 『同治十年十一月 日江原道通川郡邑誌成冊』(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2172-v.2)을 보면, 통천은 총 8개 면, 42개 洞으로 구성되었는데 碧山面은 古林洞, 地藏洞, 回山洞, 下里洞, 盲橋洞, 泉測洞, 中臺洞 등 7개 洞이 확인된다.

호주의 직업 분포는 ‘農’이 약 97%로 나타났으며, ‘商’(3호)·‘木商’(1호)·‘士’(4호)·‘巫’(1호) 등이 일부 확인되었다. 그리고 여성 과부 호주는 4명이 등재되었는데 모두 ‘農’을 직업으로 기재하였다.

동거친속에서는 여아 인구가 다수 등재되었으며 이름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름은 ‘甲辰’·‘辛丑’처럼 태어난 해의 간지로 표기하거나, ‘阿只’·‘阿之’·‘爰巳’처럼 ‘아기’를 음차하였다. 그런데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 등재된 모든 인구가 연령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가택 416호(내용 미기재 1호와 확인 미상 1호 제외)는 본인 소유의 와가가 2호, 본인 소유의 초가가 416호로 나타났다. 그런데 와가 소유 호주의 경우 초가도 함께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오로지 초가에 서만 거주하는 호주는 414호(약 99%)였다.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총 4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2. 강원도’ 참조), 이정주(3편)는 여성 호주 및 첩·과부·환관, 그리고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 양상 등을 연구 주제로 삼았으며, 박희진은 한말 호적에 보이는 商人 호주 현황을 타지역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자료로 삼았다.

② 淮陽郡 신식호적은 일본 京都大學 總合博物館에 소장된 1905년(광무 9) 작성 二東面 14개 리 거주 378戶에 대한 자료이다. 호적에서 확인되는 각 리별 현황은 扶老只里(7호), 二東里(29호), 支石里(32호), 梧桐里(25호), 秋芳里(19호), 新安里(28호), 新安中里(16호), 館里(28호), 蘆洞里(30호), 高才里(28호), 深浦里(12호), 松峙里(83호), 曲疇里(41호) 등이다.⁴⁰⁾

호주의 약 97%가 ‘農’을 직업으로 기재하였으며, 그리고 ‘商’과 ‘士人’을 직업으로 기재한 호주가 각 1명씩이었다. 여성 과부 호주도 10호 확인되는데⁴¹⁾ 모두 ‘召史’ 호칭을 기재하였으며,⁴²⁾ 5명은 직업을 기재하지 않았고 5

40) 『關東邑誌』(1871년 편찬) 제7책 ‘淮陽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2172-v.7) 面里條를 보면, 회양은 총 7개 面, 106개 里로 구성되었는데 二東面은 新安驛(里), 蘆洞里, 高才里, 松峙里, 曲疇洞里, 支石里, 梧桐里, 二東里, 扶老只里, 和川里, 佳洞里, 橋項里, 鳴牛里, 細洞里, 安美里, 楸洞里, 豐美里, 方目里, 長峙洞里 등 19개 里에 주민 호수가 총 375호였다고 한다.

명은 ‘農’을 직업으로 기재하였다.⁴³⁾ 그리고 여성 호주의 경우 1명은 四祖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고, 나머지 9명은 ‘不知’로 기재하였다.

동거친속에서는 여아 인구의 등재가 확인되며, 남녀 모두 연령을 기재하지 않았다. 가택 분포는 본인 소유의 와가 3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375호(약 99%) 모두 본인 소유의 초가로 나타나 차유 가택은 단 1호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총 4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2. 강원도’ 참조), 박희진은 한말 호적에 보이는 商人 호주 현황을 타지역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자료로 삼았으며, 이정주(3편)는 여성 호주 및 첩·과부·환관, 그리고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 양상 등을 연구주제로 삼았다.

③ 伊川郡 신식호적은 일본 一橋大學에 소장된 1907년 작성 山内面 자료이다(〈사진 6〉 참조).⁴⁴⁾ 산내면에는 15개 리에 총 614戶가 등재되었는데, 각 리별 현황은 長在里(36호), 九日里(31호), 於屯里(21호), 上位里(44호), 下地里(30호), 小峴里(27호), 銅店里(87호), 花田里(31



〈사진 6〉 1907년 伊川郡 山内面 호적

41) 이들 여성 과부 호주는 본인 혼자 또는 1~2명의 子·子婦/女 등과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42) 반면 ‘召吏’를 기재한 여성 호주와 동거하고 있는 부녀자(女, 婦 등)는 모두 ‘氏’로 기재되었다.
 43) 신식호적이 남아있는 경기도 개성과 풍덕의 경우 여성 과부 호주의 직업으로 ‘紡績’과 ‘紉’, ‘績’, ‘針工’ 등이 나타난 것과 달리 ‘農’으로만 나타난 것은 호적의 직업 기재 인식에서 지역적 차이가 있었던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핀 강원도 통천에서도 회향과 마찬가지로 여성 과부 호주가 모두 ‘農’으로 기재되었던 때문이다.
 44) 이밖에 京都大學 總合博物館에는 이천군의 신식호적 관련 자료로 1904(광무 8)에 작성된 통표도 소장되어있는 것이 확인된다. 자료에는 上初北面(12개 리), 下初北面(11개 리), 府内面(14개 리), 長北面(10개 리), 長楊面(14개 리), 安豊面(13개 리), 水入面(10개 리), 泗東面(20개 리), 二東面(14개 리), 嵐谷面(16개 리) 등 10개 면, 134개 리의 통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의 서지사항은 東洋文庫東北アジア研究班 編, 앞의 책, 306쪽에 의거하였다.

호), 豊田里(39호), 藥水里(23호), 三巨里(31호), 長洞里(66호), 楸洞里(71호), 內楸洞里(19호), 龍浦里(58호) 등이다.⁴⁵⁾

호주의 직업은 ‘農’이 거의 전부(약 99%)를 차지하고 있고, 이밖에 ‘商’(1호), ‘訓’(1호), ‘聖敎人’(2호) 등이 확인된다. 성교인 호주 2명은 龍浦里 제 57동 제7호와 제8호에서 연결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점은 주목된다.

동거친속에서는 여아 인구가 다수 등재되어 있었다. 가택 양상은 614호 모두 본인 소유의 초가로만 나타났다. 그런데 가택 분포에서 2칸 규모의 초가가 전체 호의 약 25%(151호)에 달하고 있었던 점은 주목되는 양상이었다.

한편, 이천군 신식호적을 분석한 연구로는 한말 호적에 보이는 商人 호주 현황을 타지역과 통계적으로 비교한 박희진의 논문 한 편만이 확인된다(본 논문의【부록】‘2. 강원도’ 참조).

(3) 황해도 지역 자료

황해도의 신식호적 자료는 총 6곳(谷山, 黃州, 甕津, 海州, 鳳山, 殷栗), 8책이다.⁴⁶⁾ 현전하는 북한 지역의 도별 신식호적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과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⁴⁷⁾

① 谷山郡 신식호적은 국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소에 소장된 1896년(건양 1) 작성 鳳鳴面 거주 153戶, 그리고 일본 早稻田大學 圖書館

45) 『關東邑誌』(1871년 편찬) 제3책 「伊川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2172-v.3) 嶺面條를 보면, 이천은 총 11개 面, 120개 里로 구성되었는데 1907년 호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山內面은 山陰面으로 기재되었다. 관할 洞里는 九日洞, 長在洞, 銅店里, 上地位里, 下地位里, 於屯里, 松亭里, 三巨里, 藥水洞, 長洞里, 楓田里, 龍浦里, 楸洞里, 開蓮里 등 14개 里였다. 한편 각 리에는 ‘編戶’수와 ‘男口’수를 기재하였는데 호는 최소 3호~최대 19호, 男口는 최소 6명~최대 27명으로 기재되었다. 이처럼 저하된 호·구의 파악·기록 방식은 특별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46) 鳳山郡 자료가 2책 3面(文井面·鍾巖面, 芝邱面), 谷山郡 자료가 2책 2面(鳳鳴面, 雲中面), 甕津郡 자료가 2책 2面(南面, 龍淵面) 등이고, 나머지 3개 郡(黃州, 海州, 殷栗)은 모두 1책 1면씩이 전하고 있다.

47) 이밖에 황해도의 신식호적으로 일본 宮內廳 書陵部 圖書寮文庫에 소장된 1906년(광무 10) 鳳山郡 호적이 한 책 더 확인된다. 이 자료는 ‘僧屠戶籍’으로 봉산군 芝邱坊 거주 屠漢 4호(16명: 남녀 각 8명씩)와 洞仙坊 소재 高山寺, 白雲庵, 藥水庵 등에 거주한 승려 3인을 등재한 자료이다. 그런데 屠漢의 경우 직업을 ‘閑良’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는 山內民博, 『朝鮮新式戶籍關連資料の基礎的檢討(3) - 黃海道鳳山郡僧屠戶籍冊』, 『資料學研究』 15, 日本, 新潟大學現代社會文化研究科, 2018이 확인된다.

에 소장된 1900년(광무 4) 작성 雲中面 거주 244戶 등에 대한 자료 2책이다(〈사진 7〉 참조).⁴⁸⁾ 봉명면은 桐川里(30호), 朝陽里(52호), 新彦里(41호), 擇仁里(30호)의 총 4개 리가 등재되었으며,⁴⁹⁾ 운중면은 柳村里(80호), 草坪里(60호), 林溪里(42호), 完井里(52호), 文原里(10호)의 총 5개 리가 등재되어 있다.⁵⁰⁾

봉명면 호적에서 확인되는 주민 특징으로는 호주 전체 153명 중 직업을 기재한 자가 63명(약 41%)에 불과하며, 그 직업이 모두 ‘農(業)’으로만 나타났다. 동거친속에서는 여아 인구의 등재가 확인된다.

가택 양상은 본인 소유의 와가 34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본인 소유의 초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본인 소유의 와가에서 거주한 가호 중 일부(4호)는 본인 소유의 초가도 거주 공간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며, 본인 소유의 초가에서 거주한 가호 중 일부(2호)는 借有한 와가를 거주 공간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사진 7〉 1900년 谷山郡 雲中面 호적

48) 봉명면은 곡산군의 서북부에 위치한 반면, 운중면은 곡산군의 최남부에 위치하여 두 지역 간 지리적 환경은 같은 고을 내에서도 적잖은 차이가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두 지역의 주민 양태를 비교 분석해 보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49) 桐川里와 朝陽里의 경우 일부 호적표에 관할 洞을 기재하고 있기도 하다. 동은 총 12개가 확인된다.

50) 운중면의 5개 리는 모두 호적표에 관할 洞을 기재하고 있다. 동은 총 26개가 확인된다. 한편, 1899년에 편찬된 『谷山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0897)의 各面里條를 보면, 곡산은 총 12개 面, 74개 里로 구성되었는데 鳳鳴面은 桐泉里(41호), 朝陽里(63호), 新彦里(67호), 擇仁里(30호) 등 4개 里에 주민 호수가 총 201호였으며, 雲中面은 林溪里(56호), 草坪里(73호), 文原里(85호), 柳村里(75호), 完井里(44호) 등 5개 里에 주민 호수가 총 333호였다고 한다. 호적과 읍지 두 자료 간 戶數에서 적잖은 차이가 발견되는데, 특히 운중면 文原里의 경우 그 차이가 극심하여 호적에 등재된 주민은 문원리 전체 주민의 일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윤증면은 호주의 약 97%가 ‘農(業)’을 직업으로 기재하였고, 이밖에 ‘學’(2명)과 ‘儒’(1명), ‘商(業)’(1명) 등을 기재한 호주가 있었다. 동거친속에서는 여아 인구의 등재가 확인되었다.

가택 양상은 본인 소유의 와가 26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본인 소유의 초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차유 사례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본인 소유의 와가에서 거주한 가호 중 대부분은 본인 소유의 초가도 거주 공간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2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3. 황해도’ 참조), 우희정은 봉명면 호적에 등재된 주민들의 전반적인 양상을 다루었고, 박희진은 한말 호적에 보이는 商人 호주 현황을 타지역과 통계적으로 비교하였다.

② 黃州郡 신식호적은 일본 京都大學 總合博物館에 소장된 1905년(광무 9) 작성 慕聖坊 10개 리 거주 370戶에 대한 자료이다.⁵¹⁾ 호적에서 확인되는 각 리별 현황은 龍宮里(33호), 竹垞里(21호), 靑石里(32호), 雲山里(20호), 石山里(34호), 李巳里(14호), 龍頭里(51호), 西井里(73호), 古縣里(60호), 分土里(32호) 등이다.⁵²⁾

호주의 직업은 ‘農(業)’이 거의 전부(약 99%)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밖에 ‘商(業)’(3호)과 ‘通政(大夫)’(1호)이 확인되었다. 상업에 종사한 3호는 모두 古縣里에 거주하였으며, 전통시대의 직역 기재 방식인 通政大夫를 직업으로 기재한 호주는 모성방의 최고령자(92세)였다.

동거친속에서는 여아 인구의 등재가 확인되며, 가택 양상은 전체 370호 중 기유 와가가 5호, 기유 초가가 368호로 나타났는데, 와가 소유자 중 3호

51) 戶籍表 양식에는 거주지 기입 부분에 ‘面’字로만 인쇄되어 있어, ‘慕聖’坊 대신 ‘慕面’으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

52) 『海西邑誌』(1871년 편찬) 제5책 「同治十年十月 日黃海道黃州牧兵營中營及鐵島嶺正方山城邑誌與事例竝錄成冊」(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12171-v.5) 坊里戶口條를 보면, 황주는 총 18개 坊, 153개 리로 구성되었는데 慕聖坊은 7개 리(리名 미기재)에 312호가 거주했다고 한다. 한편, 1789년의 호구조사를 반영한 『戶口總數』 제5책(奎1602-v.5) 黃海道 黃州의 호구 기록을 보면, 慕聖坊에 靑石乙里, 李巳里, 東山里, 龍頭里, 龍宮里, 竹垞里, 古縣里, 外葛里 등 8개 리가 속해 있었으며, 총 호수는 514호였다고 한다.

가 초가도 함께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오로지 초가에서만 거주한 자는 365호(약 99%)가 된다. 한편, 가택 분포에서 2칸 규모의 초가가 전체 호의 약 21%(79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총 4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3. 황해도’ 참조), 박희진은 한말 호적에 보이는 商人 호주 현황을 타지역과 통계적으로 비교하였으며, 이정주(3편)는 여성 호주 및 첩·과부·환관, 그리고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 양상 등을 연구주제로 삼았다.

③ 甕津郡 신식호적은 일본 京都大學 總合博物館에 소장된 1905년 작성 南面과 龍淵面の 자료 2책이다. 남면 호적에는 7개 리에 총 354戶가 등재되었으며, 각 리별 현황은 上巨番里(55호), 錢塘里(45호), 安山里(61호), 內新安里(38호), 外新安里(44호), 梁淵里(17호), 昌麟島里(94호) 등이다. 호적 자료에는 각 리마다 관할 洞이 1개에서 8개까지 확인되고 있다. 다음, 용연면 호적에는 5개 리에 총 435戶가 등재되었으며, 각 리별 현황은 馬項里(112호), 大機里(70호), 蒲山內里(97호), 蒲山外里(65호), 院山里(91호) 등이다. 용연면 호적 역시 각 리마다 관할 洞이 최소 4개에서 최대 10개까지 확인되고 있었다.⁵³⁾ 특히 남면 호적 자료에서 주목할 점은 황해도 섬 주민들의 생활 양태를 살필 수 있는 昌麟島 주민 94호, 385명(남성 205명, 여성 180명)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⁵⁴⁾

호주의 직업은 2개 면 모두 ‘農(業)’이 거의 전부(약 99%)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밖에 ‘船(業)’이 1호 확인되었다. 이 호적 자료는 동거친속에 여아 인구(女, 孫女 등)가 적잖이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모두 연령을 기재하였다는

53) 『海西邑誌』(1871년 편찬) 제4책 「同治十年九月 日黃海道甕津府營邑誌及事例並錄成冊」(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12171-v.4)에 기록된 坊里條와 境內五面各里條를 보면, 용진은 총 5개 面, 44개 리로 구성되었는데 南面은 巨番里, 安山里, 新安里, 葛項里, 梁淵里, 西壯里, 沙串里, 漁化島(里), 龍威島(里), 昌麟島(里) 등 10개 리에 595호, 龍淵面은 大井里, 松一里, 松二里, 松三里, 蒲山內里, 蒲山外里, 大機里, 馬項里, 院山里 등 9개 리에 622호가 각기 거주했다고 한다.

54) 그동안 섬 주민에 관한 사회생활사 연구의 경향이 전라남도와 인접 지역에 속한 섬에 치중하였음을 볼 때 황해도 용진군 창린도의 호적은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창린도 호적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임학성, 「20세기 초 황해도 甕津郡 島嶼住民의 생활 양태 - 1905년도 甕津郡 南面 昌麟島戶籍 자료의 분석 사례」, 『한국학연구』 5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이 유일하다.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가택 양상은 본인 소유의 와가 3호(남면 1호, 용연면 2호)를 제외하면 모두 본인 소유의 초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의 집을 빌려 사는 借有는 남면에서 초가 3호가 확인되었다.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총 6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3. 황해도’ 참조), 임학성(2편)은 전반적인 주민 양상 및 섬(남면 昌麟島里)에서 거주한 주민 양상을 다루었다. 그리고 박희진은 한말 호적에 보이는 商人 호주 현황을 타지역과 통계적으로 비교하였으며, 이정주(3편)는 여성 호주 및 첩·과부·환관, 그리고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 양상 등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④ 海州郡 신식호적은 일본 學習院大學 圖書館에 소장된 1901년(광무 5) 작성 東大坊 4개 리 거주 305戶에 대한 자료이다. 호적에서는 리名을 一里, 二里, 三里, 四리로 기재하였으며, 각 리 내의 관할 洞도 확인되었다. 각 리별 戶數 및 洞數 현황은 一里(34호, 2개 동), 二里(34호, 1개 동), 三里(112호, 24개 동), 四里(125호, 9개 동) 등으로 나타났다.⁵⁵⁾

호주의 직업은 모두 ‘農(業)’으로 기재되었으며, 동거친속에 여아 인구(女, 孫女)는 단 6명만 등재되어 있었다. 가택 양상은 본인 소유의 초가가 약 96%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모두 借有로 와가 1호, 초가 8호였다. 유일한 와가(차유)는 15칸의 저택 규모였는데, 5칸 규모의 초가도 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⁶⁾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총 4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3. 황해도’ 참조), 박희진은 한말 호적에 보이는 商人 호주 현황을 타지역과 통

55) 『海西邑誌』(1871년 편찬) 제7책 「黃海道海州邑誌及事例」(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2171-v.7) 坊里條를 보면, 해주는 총 35개 坊, 188개 리로 구성되었는데 호적에서 기재된 ‘東大’坊은 보이지 않는 대신 관할 리가 4개인 ‘東大公里’坊이 확인된다. 총 호수는 139호로 기재되었다. 한편, 1789년도의 호구조사 결과를 수록한 『戶口總數』 제5책(奎1602-v.5) 黃海道 海州 자료에서는 36개 방 관할 185개 리의 명칭이 一里, 二里, ..., 七里, 八里, ... 처럼 기재되었는데, 東大公里坊 역시 一里, 二里, 三里, 四리의 4개 리가 기재되었다.

56) 四里 沙洞 제6통 제1호로 편제된 이 가택의 호주는 68세로 본인 포함 동거가족은 5명으로 기재되었다. 15칸 와가와 5칸 초가로 구성된 가택을 통째로 차유한 것으로 보여진다.

계적으로 비교하는 자료로 삼았으며, 이정주(3편)는 여성 호주 및 첩·과부·환관, 그리고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 양상 등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⑤ 鳳山郡 申식호적은 일본 學習院大學 圖書館에 소장된 1900년(광무 4) 작성 文井面과 鍾巖面의 자료 1책이다. 문정면 호적에는 2개 리에 총 186戶가 등재되었으며, 종암면 호적에는 1개 리에 총 73戶가 등재되었다. 이 호적 또한 里名을 一里와 二리로 기재하였으며, 리 다음에 관할 洞名을 기재하였다. 각 리별 동수와 호수를 보면, 먼저 문정면은 一里 15개 동에 100호, 二里 18개 동에 86호가 등재되었다. 그리고 종암면은 一里 16개 동에 73호가 등재되었다.⁵⁷⁾

호주의 직업은 문정면의 경우 ‘農(業)’이 약 57%, 조선시대 벼슬 못한 양반에 대한 직역인 ‘幼學’이 약 42%였으며, 종암면 역시 ‘農(業)’이 약 64%, ‘幼學’이 약 36%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두 지역을 합쳐 여아 인구(女, 孫女)를 동거친속에 단 6명 만을 등재하였으며, 남녀 寄口가 있다고 기재한 호가 전체 259호 중 약 22%(56호), 雇傭 인구를 기재한 호가 약 32%(82호)에 달하였다. 기구 및 고용 인구수는 각각, 두 명 정도로 나타났다. 가택 양상은 문정면의 경우 借有 단 1호(와가 17칸 규모)를 제외하면 모두 己有로 와가 약 7%(13호), 초가 약 92%(172호)였다. 그런데 기유 와가 거주자의 경우 모두 초가도 생활 공간으로 함께 활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암면에서는 기유 와가와 차유 초가 각 1호씩 외에 모두 기유 초가(약 97%)로 나타났다.⁵⁸⁾ 종암면에 비해 문정면에서의 기와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총 4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3.

57) 『海西邑誌』(1871년 편찬) 제3책 『黃海道鳳山郡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2171-v.3) 坊里條를 보면, 봉산은 총 19개 坊, 47개 리로 구성되었는데 文井坊은 2개 리에 290戶(一里 165호, 二里 125호), 鍾巖坊은 1개 리에 261戶가 각기 거주했다고 한다. 한편, 『戶口總數』 제5책(奎1602-v.5) 黃海道 鳳山 자료에서는 文井坊 2개의 里名이 ‘松山里’와 ‘古井里’로 확인되며, 鍾巖坊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58) 종암면의 유일한 와가(己有) 1호는 2칸 규모였는데, 4칸 규모의 기유 초가도 함께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차유 초가 1호는 2칸이었는데, 7칸 규모의 기유 초가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7칸짜리 초가 소유자가 생활 공간을 넓히기 위해 2칸짜리 초가를 추가로 차유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종암면 호적에 등재된 73호는 모두 기유 초가 거주자였음을 알 수 있다.

황해도' 참조), 박희진은 한말 호적에 보이는 商人 호주 현황을 타지역과 비교하는 통계 자료로 삼았으며, 이정주(3편)는 여성 호주 및 첩·과부·환관, 그리고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 양상 등을 연구주제로 삼았다.

⑥ 殷栗郡 신식호적은 일본 學習院大學 圖書館에 소장된 1902년(광무 6) 작성 南面 2개 里(‘上里’와 ‘一里’) 거주 266戶에 대한 자료이다. 그런데 자료 표지에 이 호적을 ‘南上里坊’으로 기재한 것과 호적에 기재된 上里와 一里 관할 洞名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에서 볼 때,⁵⁹⁾ 南面坊을 이루고 있었던 관할 3개 里 중 한 개 里(上里, 즉 一里)의 호적 자료인 것으로 여겨진다.⁶⁰⁾

호주의 직업은 ‘農民’ 또는 ‘農人’으로 기재한 자가 약 93%였으며, ‘士人’이 9戶(약 3%), ‘商民’ 또는 ‘商人’이 4호 등으로 나타났다. 동거친속에는 ‘女’ 또는 ‘次女’로 기재된 여아 인구가 10명만 등재되었으며, 雇傭 인구를 거느린 호가 약 15%(39호)로 나타났다. 가택 양상은 己有 와가 11호와 借有 와가 2호, 그리고 차유 초가 4호 등을 제외하고 모두 기유 초가(약 96%)였다. 그런데 10칸 규모의 와가를 차유한 1호의 경우 초가 4칸도 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총 5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3. 황해도’ 참조), 먼저 이정주의 연구(2014)는 호적에 등재된 주민 양상을 주제로 삼았다. 이밖에 박희진은 商人 호주, 이정주(3편)는 여성 호주 및 첩·과부·환관,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 양상 등을 통계적으로 다루었다.

(4) 평안남도 지역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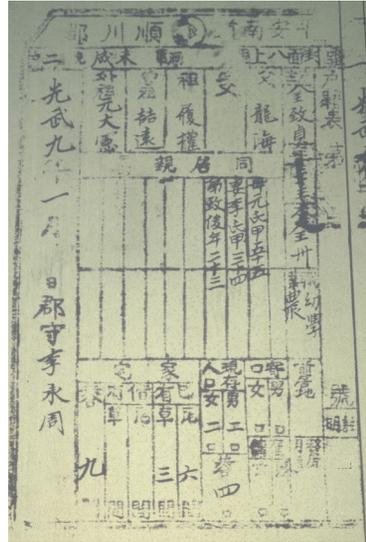
평안남도의 신식호적 자료는 총 4곳(順川, 德川, 陽德, 孟山), 7책이다.⁶¹⁾

59) 자료 표지에는 ‘南上里坊’으로 기재되었으나, 각 戶籍表에서는 거주지 기입 부분에 ‘南面과 ‘上里 또는 ‘一里’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60) 『殷栗郡誌』(1899년 편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0891) 坊리를 보면, 은울은 東·西·南·北의 4개 坊에 14개의 里로 구성되었다. 4개 방 중 南面坊은 3개 里에 554戶와 僧戶 2戶가 편제됐다고 한다. 한편, 『戶口總數』에서는 南面坊의 3개 里名이 ‘院坪’, ‘院堂’, ‘加老介’ 등으로 확인된다.

61) 順川郡 자료가 4책 4면(龍浦面, 鳳岫面, 院下面, 雷封面)이고, 나머지 3개 郡(德川, 陽德, 孟山)은 모두 1책 1면씩이 전하고 있다.

① 順川郡 신식호적은 일본 京都 大學 總合博物館에 소장된 4책으로 1897년(건양 2)에 작성된 龍浦面, 鳳岫面, 院下面의 호적 3책과 1905년(광무 9)에 작성된 것이 雷封面의 호적 1책이다(<사진 8> 참조). 각 면에 등재된 호수는 龍浦面に 169戶, 鳳岫面に 150戶, 院下面에 184戶, 그리고 雷封面에 160戶 등이다. 따라서 19세기 말~20세기 초 평안남도 순천군 호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주민은 총 663호가 된다.



<사진 8> 1905년 順川郡 雷封面 호적

한편, 호적에서 확인되는 각 面 管할 里의 현황은 먼저 용포면의 경우 初上里(40호), 再上里(16호), 中上里(10호), 元中里(27호), 中別里(39호), 江邊里(22호), 江下里(15호) 등 7개 里이며, 봉수면은 上里(47호), 上間里(15호), 中里(35호), 別間里(18호), 下里(35호) 등 5개 里이며, 원하면은 一中里(26호), 鰲岩里(14호), 倉中里(43호), 倉下里(30호), 倉南里(36호), 望日里(14호), 龍泉里(21호) 등 7개 里이다. 그리고 너봉면은 銀泉里(39호), 八上里(26호), 八下里(30호), 清水里(30호), 八中里(8호), 南陽里(27호) 등 6개 里이다.⁶²⁾

호주의 직업은 먼저 1897년 龍浦·鳳岫·院下 3개 面의 경우 ‘農’·‘農業’·‘農事’ 등으로 기재한 자가 약 86%(431호), ‘商’·‘商業’ 및 ‘酒商’, ‘糶商’ 등으로 기재한 상업종사자가 약 12%(60호), 이밖에 ‘醫’·‘醫方’(4호), ‘儒’·

62) 『關西邑誌』(1895년 편찬) 제3책 『順川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2169-v.3) 坊里條를 보면, 순천은 총 19개 坊, 151개 里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龍浦坊에는 初上里, 元中里, 再上里, 中別里, 新德里的 5개 里, 鳳岫坊에는 上里, 中里, 下里, 別間里的 4개 里, 院下坊에는 一中里, 鰲巖里, 倉中里, 倉下里, 倉南里, 望日里, 龍泉里的 7개 里, 그리고 雷封坊에는 內洞里, 銀泉里, 南陽里, 清水里, 八上里, 八下里的 6개 里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韓國戶口表』 자료에 기재된 1907년 호수는 院下面 283戶, 龍浦面 252戶, 鳳岫面 331戶 등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는 雷封面이 확인되지 않았다.

‘儒業’(3戶), ‘學’(2호), ‘執綱’(1호) 등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반면, 1905년 雷封面에서는 ‘幼學·士’를 병기한 1호를 제외하고 모두 농업종사자였는데, 농업종사자 역시 ‘幼學·農’(143호, 약 90%), ‘閑良·農’(14호, 약 9%), ‘前監察·農’(1호)처럼 직업을 병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 방식은 <職業> 기재란에서 <職> 밑에는 ‘幼學’을, <業> 밑에는 ‘農’을 기재하는 것이었다(<사진 8> 참조). 주민들은 ‘職’을 전통시대의 職役으로, 그리고 ‘業’을 근대적 職業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동거친 속에는 4개 면 모두 여아 인구가 거의 기재되지 않았다.⁶³⁾

한편, 가택 양상은 1897년 龍浦·鳳岫·院下 3개 면의 경우, 己有 초가 약 73%(369호), 기유 와가 약 23%(116호), 借有 와가 약 2%(12호), 그리고 차유 초가 약 3%(15호) 등과 같이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했으며, 특히 기유든 차유든 와가 거주자의 대다수는 초가를 생활 공간으로 함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⁴⁾ 1905년 雷封面에서는 차유 가택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유 와가 거주자가 약 78%(125호), 기유 초가에서만 거주한 자가 약 22%(35호)로 나타났다. 그런데 와가 거주자 중 약 80%(99호)는 초가를 생활 공간으로 함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160호 가호 중 실제 초가의 비율은 약 84%(134호)이기도 하였다.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4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4. 평안남도’ 참조), 박희진은 商人 호주, 이정주(3편)는 여성 호주 및 첩·과부·환관,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 양상 등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② 德川郡 신식호적은 일본 京都大學 總合博物館에 소장된 1905년(광무 9) 작성 金城面 8개 리 거주 225戶에 대한 자료이다.⁶⁵⁾ 호적에서 확인되

63) 1897년 龍浦·鳳岫·院下 3개 면 호적에서는 단 4명의 女만 등재했으며, 1905년 雷封面 호적에서는 여아 인구를 전혀 등재하지 않았다.

64) 기유 와가 거주자(116호) 가운데 기유 초가를 함께 거주 공간으로 한 경우가 약 74%(86호), 차유 와가 거주자(12호) 가운데 차유 초가를 함께 거주 공간으로 한 경우가 약 33%(4호) 등이었다. 한편, 기유 와가 거주자가 기유 초가와 차유 와가를 함께 생활 공간으로 삼은 사례, 기유 초가 거주자가 차유 와가를 함께 생활 공간으로 삼은 사례 등도 각 1호씩 발견되었다.

65) 金泳謨는 이 자료의 작성 시기를 광무 8년(1904)으로 잘못 비정하였다(『第3章 韓末 農村社會의 階層構造』, 『韓國社會階層研究』, 일조각, 1982, 185쪽).

는 각 리별 현황은 水興里(15호), 馬灘里(43호), 水下里(48호), 三豐里(15호), 陶下里(25호), 陶上里(19호), 三淵里(27호), 蓮塘里(33호) 등이다.⁶⁶⁾

호주 225명의 직업 분포는 <職>과 <業>을 구별하여 병기하는 방식을 취하여 모두 ‘幼學·農’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택 양상은 모두 본인 소유의 己有였는데, 와가 비율이 약 33%, 초가 비율이 약 83%로 나타났다. 와가 거주자 중 초가를 함께 거주 공간으로 기재한 자가 약 16%를 보여 순수 초가에서만 거주한 자는 약 67%에 해당하였다.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5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4. 평안남도’ 참조), 김영모는 가족과 신분 구조, 박희진은 商人의 통계적 비교, 이정주(3편)는 여성 호주 및 첩·과부·환관,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 양상 등에 관해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③ 陽德郡 신식호적은 일본 京都大學 總合博物館에 소장된 1897년(건양 2) 작성 化村面 12개 리 거주 228戶에 대한 자료이다. 호적에서 확인되는 각 리별 현황은 星巖里(21호), 長興里(8호), 昌介里(30호), 內坪里(20호), 外坪里(13호), 花巖里(18호), 楓溪里(14호), 文巖里(19호), 白石里(15호), 平谷里(37호), 城東里(26호), 如意里(7호) 등이다.⁶⁷⁾ 각 리에는 최소 1개~최대 11개의 洞(자연마을)이 기재되기도 하였다.

호주 228명의 직업 분포는 ‘農’이 약 93%(212호)였으며, 이밖에 ‘商’(4호), ‘酒商’(1호), ‘客主’(3호), ‘醫’(4호), ‘士’(2호), 그리고 ‘訓講’과 ‘尊位’가 각 1호씩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의 호적 자료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醫業 중

66) 『德川郡邑誌』(1899년 이후 편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想白古915.18-D44) 面里條를 보면, 덕천은 총 13개 面, 110개 리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金城面은 陶上里, 陶下里, 三淵里, 蓮塘里, 水下里, 雲灘里, 長峴里, 三豐里, 水興里 등 9개 리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金城面/坊의 주민 호수는 1907년에 실시된 호구조사 결과를 편찬한 『韓國戶口表』에 363戶로 나타났다.

67) 『陽德郡邑誌』(1899년 편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0919) 各面條를 보면, 양덕은 총 10개 面, 87개 洞(里?)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化村面은 12개의 洞(里)이 있었다고 한다. 1789년의 호구조사 결과를 수록한 『戶口總數』 제7책(奎1602-v.7) 平安道 陽德 자료에서는 화촌면에 속한 리의 명칭으로 ‘小古介里’와 ‘平谷里’, ‘昌介里’ 3개만 확인되며, 호수는 249戶였다. 한편, 1907년에 실시된 호구조사 결과를 편찬한 『韓國戶口表』에 化村面의 주민 호수가 470戶로 나타났다.

사자가 4명이나 확인된 점은 특이하다 하겠다.⁶⁸⁾

한편, 가택 양상은 기유 와가와 초가는 물론 차유 와가와 초가까지 모두 나타났는데, 먼저 기유의 경우 와가 비율이 약 59%(134호), 초가 비율이 약 40%(92호)로 나타났다. 차유에서는 와가 비율이 약 25%(58호), 초가 비율이 약 16%(36호)였다. 그런데 와가 거주자의 절반(67호)이 초가도 생활 공간으로 함께 활용하고 있어 순수 기유 초가 거주자는 약 11%(25호), 순수 차유 초가 거주자는 약 4%(10호)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와가에서의 거주자는 물론 차유 가택에서의 거주자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기유 와가와 초가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가 초가까지 차유하여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기유 와가 거주자가 초가를 차유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4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4. 평안남도’ 참조), 박희진은 商人 호주, 이정주(3편)는 여성 호주 및 첩·과부·환관,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 양상 등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④ 孟山郡 신식호적은 일본 國立歷史民俗博物館에 소장된 1906년(광무 10) 작성 外南面(坊) 2개 리 거주 총 248戶에 대한 자료이다.⁶⁹⁾ 호적에서 확인되는 2개 리는 鷲岩里와 朴達里로 각 호수는 120호와 128호였다. 한편, 崔岫里와 朴달리 모두 각 6개의 관할 洞이 확인되었다.⁷⁰⁾

호주 248명의 직업은 ‘農’이 거의 전부(약 99%, 246호)를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31명(약 13%)은 조선시대 양반사족의 직역에 해당하는 ‘幼學’을 ‘農’과 병기하고 있었다. 동거친속에 기재된 여아 인구는 ‘女’ 단 한 명뿐으로 나타났다. 가택 양상은 초가의 비율이 약 92%(228호)였으나, 와가의 비율도 약 50%(123호)로 나타났다. 그리고 와가와 초가 모두 차유 가택도 일부 존

68) 의업 종사 호주의 거주지는 星巖里, 外坪里, 文巖里, 平谷里 등으로 분산되어 나타났다.

69) 孟山郡의 1906년 호적 자료에 대한 서술은 山內民博, 「朝鮮新式戶籍關連資料의 基礎的檢討(4)-國立歷史民俗博物館所藏1906年平安南道孟山郡外南面戶籍」, 『環日本海研究年報』 27, 日本, 新潟大學現代社會文化研究科環日本海研究室, 2022에 의거하였다.

70) 『孟山郡邑誌』(1899년 편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10930) 坊里條를 보면, 맹산은 총 8개 坊, 15개 리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外南坊은 鷲岩里와 朴達里 2개 리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外南坊의 주민 호수는 『韓國戶口表』(1907년 편찬)에 298戶로 나타났다.

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와가와 초가를 거주 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가호의 비율이 적잖았음을 엿보게 해준다.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주민 양상을 다룬 山内民博의 논문 한 편만이 확인된다(본 논문의【부록】‘4. 평안남도’ 참조).

(5) 평안북도 지역 자료

평안북도의 신식호적 자료는 총 5곳(義州, 慈城, 定州, 龜城, 博川), 8책이다.⁷¹⁾

① 義州郡 신식호적은 일본 京都大學 總合博物館에 소장된 1905년(광무 9) 작성 津里面 15개 洞(里) 거주 278戶에 대한 자료이다. 호적에서 확인되는 각 리별 현황은 仙上洞(19호), 仙下洞(22호), 樂元洞(35호), 樂淸洞(16호), 送鵬洞(24호), 土橋洞(18호), 彌勒洞(14호), 倉浦洞(32호), 柳洞(33호), 塔上洞(19호), 塔中洞(8호), 塔下洞(14호), 石上洞(8호), 石中洞(6호), 石下洞(10호) 등이다.⁷²⁾ 그런데 1905년 의주군 신식호적 자료에서 統의 순서가 제756통~제783통까지 기재된 점은 특이하다. 이는 의주군의 첫 번째 면부터 통의 순서를 시작하여 계속 다음 면으로 이어 기재하는 편제 방식을 택했던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⁷³⁾

호주 278명의 직업 기재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직업 기재와

71) 慈城郡 자료가 2책 4면(邑面·館洞面·三興面, 閭延面), 定州郡 자료가 2책 1面(海山面: 1899년과 1900년 각 1책씩), 龜城郡 자료가 2책 2면(五峰面, 內東面) 등이고, 나머지 2개 郡(義州, 博川)은 모두 1책 1면씩이 전하고 있다. 이밖에 평안북도의 신식호적 관련 자료로 1900년(광무 4)에 작성된 鐵山郡의 統表 1책이 일본 學習院大學 圖書館에 전하고 있다. 통표에는 丁惠面(20개 리, 640호), 餘閑面(25개 리, 700호), 古城面(22개 리, 770호), 站面(25개 리, 710호), 扶西面(21개 리, 620호), 西林面(34개 리, 830호), 雲山面(9개 리, 570호), 栢梁面(14개 리, 646호) 등 8개 面, 170개 里의 총 5,486戶가 수록되어 있다.

72) 『龍灣誌(義州郡邑誌)』(1863년~1907년간 편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0936) 坊里條를 보면, 의주는 총 23개 面, 216개 里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津里面은 12개의 里에 호수가 296戶였다고 한다. 의주군 津里面 관할 里의 현황은 『戶口總數』(1789년경 편찬) 제7책(奎1602-v.7) 平安道 義州 자료에서 비교적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宋漢洞, 塔下洞, 柳洞, 石橋洞, 馬尙洞, 彌勒洞, 缸上洞, 缸下洞, 塔上洞, 土橋洞, 倉浦洞 등 총 11개 里가 있었으며, 호수는 583호였다고 한다.

73) 위 『龍灣誌』 坊里條에 津里面이 전체 23개 面 중 19번째로 나타나며, 18번째 면까지의 호수 총수가 11,717戶로 집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편제 방식의 가능성이 짙다고 볼 수 있다. 한편, 『龍灣誌』 戶口條에 의주군의 전체 家戶가 12,668戶였다고 하였다.

별도로 전근대 남성에 대한 人身 파악 방식인 職役을 호주의 성명 위에 병기 하였던 것이다. 먼저 직업 기재에서는 ‘農’이 약 95%(265호)로 거의 전부를 차지했으며, 이 중 ‘幼學’을 직역으로 병기한 ‘農’이 약 85%(235호), ‘閑良’을 직역으로 병기한 ‘農’이 약 10%(28호)로 나타났다. 이밖에 직업에 ‘儒’를 기재한 자가 3명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성명 위에 ‘幼學’을 직역으로 병기 하였다. 따라서 직역 병기에서는 ‘幼學’이 약 89%(247호)나 되었다. 한편, ‘閑良’ 직역을 병기한 ‘農’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다수인 ‘幼學’ 직역 병기 호주는 모두 四祖(부/생부, 조, 증조, 외조)의 직역을 기재하고 있었다.⁷⁴⁾ 사조의 직역으로는 벼슬 없이 사망한 양반사족을 칭하는 ‘學生’ 기재가 3조(부, 조, 증조)에서는 약 85%, 외조에서는 약 74%로 나타났다.

동거친속에는 女와 孫女 등의 여아 인구가 단 1명도 등재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기재 누락 양상은 寄口와 雇傭人 수치 기재에서도 동일하였다. 가택 양상은 기유 및 차유에 해당하는 와가와 초가가 모두 확인되었는데, 기유 초가가 약 81%(225호)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차유 초가가 약 11%(31호), 기유 와가가 약 8%(22호), 차유 와가가 약 1%(3호)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유와 차유 방식의 와가 거주자의 대다수는 초가도 생활 공간으로는 함께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유와 차유를 합쳐 오로지 초가에서만 거주한 가호는 약 87%(243호)였음을 알 수 있었다.⁷⁵⁾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4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5. 평안북도’ 참조), 박희진은 한말 호적에 보이는 商人 호주 현황을 타지역과 비교하는 통계 자료로 삼았으며, 이정주(3편)는 여성 호주 및 첩·과부·환관,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 양상 등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② 慈城郡 신식호적은 일본 京都大學 總合博物館에 소장된 1905년 작성 邑內面·館洞面·三興面(이상 1책)과 闊延面(1책) 등의 자료 2책이다. 먼저 읍내면 호적에는 144戶가 등재되었는데, 관할 里에 대한 기재를 단 1호

74) 호적 기재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20세기 초 義州郡 지역에서의 幼學과 閑良 두 직역 기재자 간 신분적 차별 의식의 잔존 현상을 엿보게 해준다.

75) 기유 초가에서만 거주자는 약 77%(213호), 차유 초가에서만 거주자는 약 11%(30호) 등이었다.

도 하지 않았다. 다음 관동면 호적에는 6개 리 거주 98戶가 등재되었으며, 각 리별 현황은 坪里(27호), 本里(1호), 中里(33호), 館興里(24호), 上里(11호), 白磻里(2호) 등이다. 삼흥면에는 照牙里(69호)와 雲峰里(63호)의 2개 리에 거주한 132戶가 등재되었다. 마지막 여연면에는 6개 리 거주 317戶가 등재되었으며, 호적에서 확인되는 각 리별 현황은 項岩里(44호), 晚興里(43호), 中下里(20호), 中德里(72호), 中坪里(56호), 中上里(82호) 등이다.⁷⁶⁾ 따라서 1905년 자성군 호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주민 호수는 총 691호가 된다.

호주 691명의 직업은 약 97%(667명)가 ‘農’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살핀 1905년 義州郡 津里面 호적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 기재란과 별도로 호주 성명 위에 ‘幼學’을 병기한 자들이 확인되었다. ‘農’ 직업 기재자 중에서는 약 19%(125명)가 그러하였다. 다음으로 ‘商’을 기재한 자는 15명이었지만 역시 호주 성명 위에 ‘幼學’을 병기한 자가 절반 가까운 7명이나 되었다. 이밖에 ‘砲士’가 3명,⁷⁷⁾ ‘工’과 ‘刀漢’,⁷⁸⁾ ‘幼學’, ‘書記+幼學’, ‘醫’, ‘通引’ 등이 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동거친속에는 여아 인구(女와 孫女 등)가 단 1명도 등재되지 않았으며, 寄口와 雇傭人 수치도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한편, 가택 기재란에는 <己有>/<借有>-<瓦>/<草> 표기 없이 빈칸에 직접 ‘板家三間’처럼 수기로 기재하고 있었다. 이는 慈城郡에서 별도의 호적표 양식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자성군 4개 면의 가택 691호가 모두 판잣집[板家]으로만 기재되었다는 점은 주목해 볼 수 있다.⁷⁹⁾ 아울러 2칸 규

76) 1899년(광무 3) 6월에 편찬된 『慈城郡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0954)의 各面條를 보면, 자성은 총 9개 面으로 구성되었는데, 邑內面·館洞面·閭延面은 확인되나 三興面이 나타나지 않는 대신 ‘三上面’과 ‘三下面’이 확인된다. 그런데 1899년 8월에 편찬된 『慈城郡軍田定稅成冊』(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9633) 자료를 보면, 邑內面·館洞面·閭延面과 함께 三興面이 확인된다. 1899년 6월 읍지 편찬 때까지 존재한 ‘三上面’과 ‘三下面’ 중 하나가 2개월 후에 편찬된 軍田定稅成冊 때에 ‘三興面’으로 개명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軍田定稅成冊에서는 역시 ‘三上面’과 ‘三下面’ 중 하나가 개명되었을 ‘三豐面’도 나타났다. 한편, 이들 4개 면의 호수는 『韓國戶口表』(1907년)에 邑面 193호, 三興面 164호, 館洞面 185호, 閭延面 708호 등이었다고 한다.

77) ‘砲士’는 총으로 짐승을 잡는 사냥꾼, 즉 砲手에 대한 존칭(?)으로 여겨진다. 慈城郡이 평안북도 최북단 압록강 상류에 위치한 산악지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호적에서 발견될 만한 직업이라고 본다.

78) ‘刀漢’은 屠漢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屠’자 대신 ‘刀’자를 기재한 점은 흥미롭다.

모의 가택이 전체의 약 24%(167호)나 되었다는 점도 주목되는 양상이다.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5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5. 평안북도’ 참조), 박희진은 商人 호주, 이정주(4편)는 호적 자료 전반, 그리고 여성 호주 및 첩·과부·환관,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 양상 등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③ 定州郡 신식호적은 일본 學習院大學 圖書館에 소장된 1899년(광무 3)과 1900년(광무 4) 작성 海山面의 호적 2책이다. 1899년 호적에 등재된 리는 ‘一里’와 ‘二里’ 2개, 호수는 387戶였으며, 1900년 호적에 등재된 호수는 387戶로 1899년과 변동이 없었으나 리는 ‘一里’와 ‘二里’ 외에 ‘獐島里’가 추가되어 3개로 나타났다.⁸⁰⁾ 각 리별 호수는 먼저 一里의 경우 1899년과 1900년이 동일하게 180戶였다. 二里의 경우에는 1899년이 207戶, 1900년이 157戶였다. 그리고 1900년 호적 자료에서 새로 발견된 獐島里의 호수는 50戶로 나타났다. 그런데 1899년 호적에서 獐島里가 확인되었다. 바로 二里 관할 7개 洞 가운데 ‘獐島洞’이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주민 호수 역시 1900년과 같은 50戶였다. 1899년과 1900년의 정주군 獐島의 호적 내용은 평안도의 섬 주민들의 생활 양태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 가치가 적잖다고 하겠다.

호주 387명의 직업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그 기재 방식도 앞에서 소개한 1905년 義州郡과 慈城郡 호적과 마찬가지로 직업 기재와 별도로 직역을 호주 성명 위에 병기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 분포는 1899년과 1900년간 큰 차이 없이 ‘農’을 직업으로 기재한 호주가 약 87% 정도씩을, 그리고 ‘幼學’을 직역으로 병기한 호주가 약 97% 정도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船’·‘鹽’·‘漁’ 등을 직업으로 기재한 호주가 적잖이(전체 호주의 약 9%)

79) 691호 관가의 규모는 대부분 2-8칸 범위 내였지만, 유독 한 집만 20칸으로 기재하였다. 거주 가족은 총 10명(戶主+妻+子+子+弟+弟嫂+弟+弟嫂+姪子+姪婦)이며, 호주의 직업은 ‘農’이었다. 20칸 규모의 관자집이 어떤 구조였는지 궁금하다.

80) 『關西邑誌』(1895년 편찬) 제18책 「開國五百四年三月 日定州牧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2169-v.18) 坊名條를 보면, 정주는 총 19개 坊, 80개 里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海山面은 3개의 里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韓國戶口表』(1907년) 자료에서는 海山面의 주민 호수가 634戶였다고 한다.

확인되고 있었다.⁸¹⁾ 이러한 양상은 정주군 海山面이 해안지대에 위치한 지역이었을 뿐 아니라, 해안에 근접하여 獐島라는 섬이 위치하였다는 점과 관련된 것이라 하겠다.⁸²⁾ 한편, ‘農’ 외에 ‘士’·‘商’·‘木手’·‘醫’·‘學’ 등을 직업으로, 그리고 ‘幼學’ 외에 ‘嘉善(大夫)’·‘通訓(大夫)’·‘將仕郎’·‘通德郎’·‘司果’·‘參奉’·‘前監察’ 등을 직업으로 병기한 호주들도 확인되었다.

가택 양상은 기유 및 차유 와가와 초가가 모두 확인되었는데, 기유 초가의 비율이 약 97% 정도씩으로 가장 높았으며, 와가의 비율과 차유 가택의 비율은 약 2% 정도씩에 불과하였다.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6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5. 평안북도’ 참조), 이유진(2편)은 호구 변동 사례 및 의미를 다루었고, 박희진은 商人 호주, 이정주(3편)는 호적 자료 전반, 그리고 여성 호주 및 첩·과부·환관,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 양상 등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④ 龜城郡 신식호적은 1898년(광무 2)에 작성된 자료 2책으로 한 책은 일본 學習院大學 圖書館에 소장된 五峰面 호적이고, 다른 한 책은 일본 東京大學 韓國朝鮮文化研究室에 소장된 內東面 호적이다. 오봉면 호적에는 3개 리 거주 347戶, 내동면 호적에는 3개 리 거주 201戶가 등재되었다. 호적에서 확인되는 각 리별 현황은 오봉면의 경우 陽地里(119호, 6개 洞), 西陽里(137호, 3개 洞), 朝陽里(91호, 4개 洞)였으며, 내동면은 光法里(58호, 4개 洞), 中丹里(68호, 4개 洞), 下丹里(75호, 6개 洞) 등이었다.⁸³⁾

호주의 직업은 오봉면과 내동면 모두 ‘農’으로 기재되었으며, ‘農’ 직업 기재자 가운데 5명은 별도로 ‘教官’·‘郡守’·‘進士’·‘正言’(이상, 오봉면)과

81) 한편, ‘漁’·‘船’·‘鹽’·‘商’ 등을 직업으로 기재한 호주 모두 성명 위에 ‘幼學’을 병기하고 있는 점은 주목해 볼 수 있다.

82) ‘船’을 직업으로 기재한 호주는 거의 獐島(洞·里)에 거주하고 있었고, ‘鹽’을 직업으로 기재한 호주는 모두 一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83) 『龜城郡邑誌』(1899년 편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0950) 坊部條를 보면, 구성은 총 14개 坊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성군 五峰面과 內東面의 호수와 里名은 『戶口總數』(1789년경 편찬) 제7책(奎1602-v.7) 平安道 龜城 자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五鳳坊’은 528戶에 陽地里, 朝陽里, 西陽里的 3개 리, ‘內東坊’은 364戶에 廣法里, 中端里, 下端里, 島里, 外城里的 5개 리였다. 한편, 『韓國戶口表』(1907년)에서는 주민 호수가 內東面 367戶, 五峰面 578戶 등으로 나타났다.

‘出身’(내동면) 등의 직역을 성명 위에 병기하고 있었다. 호주의 사조 기재에서는 오봉면에서의 父의 경우만 직역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 모두 이름 위에 직역을 기재하고 있었다. 이들의 직역은 거의(93% 이상)⁸⁴⁾ ‘學生’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직역은 ‘崇政(大夫)’, ‘嘉善(大夫)’, ‘通政(大夫)’, ‘宣略(將軍)’, ‘參判’, ‘典籍’, ‘掌令’, ‘前郡守’, ‘五衛將’, ‘及第’, ‘幼學’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두 면의 호적에서 호주와 처는 물론 子와 子婦, 손자와 손부 등의 成婚 가족이 대부분 동갑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이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거친속에서는 여아 인구가 전혀 등재되지 않았다.⁸⁵⁾

가택 양상은 오봉면(347호)의 경우 기유 초가 약 85%(296호), 기유 와가 약 8%(29호), 차유 초가 약 13%(44호) 등이었으며, 내동면(201호)에서는 기유 초가 약 86%(173호), 기유 와가 약 12%(25호), 차유 와가 약 1%(2호), 차유 초가 약 8%(17호) 등으로 분포하였다.⁸⁶⁾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5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5. 평안북도’ 참조), 박희진은 한말 호적에 보이는 商人 호주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자료로 삼았으며, 이정주(4편)는 주민의 호구와 가택 양상 전반, 그리고 여성 호주 및 첩·과부·환관,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 양상 등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⑤ 博川郡 신식호적은 일본 學習院大學 圖書館에 소장된 1902년(광무 6) 작성 南面 18개 리 거주 332戶에 대한 자료이다(〈사진 9〉 참조). 호적에서 확인되는 각 리별 현황은 長生里(6호), 延峰里(10호), 松中里(25호), 松一里(17호), 西三里(27호), 南上里(7호), 南下里(2호), 南二里(16호), 南四里(13호), 孟下里(33호), 東中里(24호), 孟中里(33호), 東六里(14호), 北二里(19호), 東四里(36호), 孟上里(14호), 松南里(14호), 南六里(22호) 등이다.⁸⁷⁾

84) 내동면 호주의 父 가운데 ‘學生’을 직역으로 기재한 비율만 약 82%로 낮았을 뿐이다.

85) 내동면 호적에서 단 1명의 女만 등재되었는데, 25세로 동갑 연령의 남편(‘婿’로 기재)과 함께 부모와 거주하고 있었다.

86) 그런데 두 면 모두 기유 와가에서 거주한 호주 가운데 초가도 함께 소유하여 거주한 자를 제외할 경우, 오로지 기유 초가로만 이루어진 가택에서 거주한 호주의 비율은 약 77~79% 정도가 된다.

호주 332명의 직업 기재는 약 97% (321명)가 ‘農’으로 나타났는데, 이 호적에서도 역시 직업 기재란과 별도로 호주 성명 위에 ‘幼學’을 병기하고 있었다(<사진 9> 참조). 이처럼 ‘幼學’을 병기한 호주는 전체 ‘農’ 직업 기재자 중에 무려 95%(315명)나 되었다.⁸⁸⁾ 이밖에 ‘商’(2명), ‘醫’(1명), ‘船’(1명) 등을 직업으로 기재한 호주도 확인되었다. 이들 역시 ‘幼學’을 병기하고 있었다. 호주 四祖의 직역도 거의 기재되었는데, 四祖 모두 약 92%~97%가 ‘學生’을 기재하고 있었



<사진 9> 1902년 博川郡 南面 호적

다. 동거친속에서는 여아 인구(女와 孫女 등)가 다수 등재되었으며 연령도 빠짐없이 기재되었다.

가택 양상은 기유 및 차유 와가와 초가가 모두 확인되었는데, 기유 초가의 비율이 약 99%(330호)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유 와가의 비율이 약 5%(18호), 차유 와가의 비율이 약 6%(20호)였으며, 차유 초가는 5호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유 와가 거주자(18호) 중 17호가 기유 초가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고, 차유 와가(20호)와 초가(5호) 거주자 중 단 1호(초가)를 제외하고 모두 기유 초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었다. 기유 초가 거주자 중 24호는 생활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와가 또는 초가를 차유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2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5. 평

87) 『博川郡邑誌』(1899년 편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0946) 面里條를 보면, 박천은 총 5개 面, 117개 里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南面은 17개의 里가 있었다고 한다. 1789년경에 편찬된 『戶口總數』 제7책(奎1602-v.7) 平安道 博川 자료에서는 南面の 호수가 658戶였으며, 里는 松筒東一里, 松筒中一里, 北二里, 屈浦南二里, 西三里, 松一里, 松中里, 長生里, 延峯里, 東四里, 南四里, 孟上里, 孟中里, 孟下里, 南六里, 東六里, 中六里 등 17개였다고 한다. 한편, 『韓國戶口表』(1907년) 자료에서는 南面的 주민 호수가 441戶로 나타났다.

88) 전체 332호 중 ‘幼學’을 병기한 호주는 약 98%(325명)로 나타났다.

안북도' 참조), 김영호는 주민의 생활 양태를 전반적으로 다루었고, 박희진은 한말 호적에 보이는 商人 호주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자료로 삼았다.

(6) 함경남도 지역 자료

함경남도의 신식호적 자료는 총 3곳(永興, 端川, 北靑), 5책이다.⁸⁹⁾

① 永興郡 신식호적은 일본 京都大學 總合博物館에 소장된 1897년(건양 2) 작성 耀德社, 雲谷社, 順寧社 호적 3책이다. 요덕사에는 15개 리 거주 500戶, 운곡사에는 9개 리 거주 395戶, 순녕사에는 16개 리 거주 604戶 등, 총 1,499戶의 주민이 등재되어 있다. 호적에서 확인되는 각 리별 현황은 요덕사의 경우 仁上里(69호), 仁興里(61호), 城里(10호), 南山里(10호), 栢洞里(10호), 北坪里(30호), 坪田里(50호), 龍上里(20호), 龍川里(20호), 大淑里(40호), 小淑里(30호), 立石里(60호), 重新里(60호), 下新里(20호), 花田里(10호)이며, 운곡사는 龍坪里(50호), 館坪里(52호), 山界里(19호), 草坪里(44호), 上坪里(56호), 下坪里(38호), 太乙里(50호), 天乙里(40호), 雲興里(46호)이다. 그리고 순녕사의 경우 柳南里(42호), 柳北里(37호), 興南里(27호), 原川里(34호), 加次山里(54호), 雙花山里(40호), 龍井里(20호), 州南里(10호), 豐鄉里(13호), 豐洞里(16호), 雙花里(4호), 鯨巖里(37호), 所羅里(80호), 禾島里(30호), 小黑石里(60호), 大黑石里(100호) 등이다.⁹⁰⁾

호주의 직업 분포는 3개 社마다 다소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먼저 요덕사의 경우 직업 미기재 호주 11명을 제외한 489명의 호주 가운데 농업 중

89) 永興郡 자료가 3책 3面/社(耀德社, 雲谷社, 順寧社)이고, 나머지 2개 郡(端川, 北靑)은 모두 1책 1면씩이 전하고 있다.

90) 『永興郡邑誌』(1899년 편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10992) 坊社條를 보면, 영흥은 총 13개 社, 243개 리로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順寧社는 柳洞里, 原川里, 興南里, 加次山里, 雙花山里, 龍井里, 鯨巖里, 州南里, 蓮峰里, 所羅里, 禾島里, 大黑石里, 小黑石里, 廣津里, 亭子里, 中陽里, 新井里, 星南里, 尓豆洞里, 陵洞里, 太平里, 豐洞里, 德浦里, 松峙里, 葛田里, 龍川里, 頭山里, 石上里, 石下里 등 29개의 리에 1,127戶, 耀德社는 仁上里, 仁興里, 南山里, 城里, 栢洞里, 坪田里, 北平里, 龍上里, 龍川里, 大淑里, 立石里, 重新里, 花田里, 下新里 등 14개 리에 396戶, 그리고 雲谷社는 山界里, 平地里, 草坪里, 官坪里, 倉里, 天乙里, 太乙里, 雲興里 등 8개의 리에 293戶가 있었다고 한다.

사자(‘農’, ‘農民’, ‘農業’ 등으로 기재)가 약 84%(413명),⁹¹⁾ 儒學 관련자(‘儒’, ‘儒生’, ‘儒業’, ‘儒業進士’ 등으로 기재)가 약 14%(70명),⁹²⁾ 이밖에 ‘武’ 또는 ‘武人’이 4명, ‘學業’이 2명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 운곡사에서는 381명(13명 직업 미기재, 1명 관독 불가)의 호주 직업이 농업 종사자(‘農’과 ‘農業’으로 기재) 약 98%(375명),⁹³⁾ ‘土業’과 ‘商’이 각 3명씩이었다. 다음, 순녕사에서는 588명(16명 직업 미기재)의 호주 직업이 농업 종사자(‘農’과 ‘農業’, ‘土/農業’ 등으로 기재) 약 85%(500명),⁹⁴⁾ 儒學 관련자(‘儒’, ‘儒生’, ‘儒業’ 등으로 기재) 약 7%(42명),⁹⁵⁾ 상업 종사자(‘商’과 ‘商業’으로 기재)가 약 6%(35명)⁹⁶⁾ 등이었다. 이밖에 ‘仕’·‘工’(이상, 각 2명), ‘監察’·‘幼學’·‘學業’·‘醫業’·‘齋直’·‘二業’⁹⁷⁾·‘傭’(이상, 각 1명) 등 매우 다양한 직업군이 등재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傭’ 직업자는 성명(‘李氏’) 위에 ‘寡女’로 표기되었다.⁹⁸⁾ 여하튼 직업 양상을 종합 정리하면, 19세기 말 함경남도 영흥군의 3개 社 지역에서 거주한 주민들의 약 88%(1,288명)가 농업 종사자였으며, 儒學(土, 幼學, 學業 등 포함) 관련자가 약 8%(120명), 상업 종사자가 약 3%(38명) 등의 비율로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유학 관련 종사자의 경우 요덕사와 순녕사에 집중되었고, 상업 종사자는 순녕사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여성(과부) 호주의 등재 양상에서도 발견되는데, 3개 社의 전체 호주 1,499명 중 여성(과부) 호주는 유독 순녕사에서만 13명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⁹⁹⁾

91) 직업을 ‘農’으로 기재한 자가 약 17%(82명), ‘農民’으로 기재한 자가 약 8%(40명), ‘農業’으로 기재한 자가 약 60%(291명) 등이다.

92) ‘儒’ 기재자가 약 5%(23명), ‘儒生’ 기재자가 약 4%(22명), ‘儒業’ 기재자가 약 5%(24명), 그리고 ‘儒業進士’로 기재한 자가 1명 등이다.

93) ‘農’ 기재자가 약 33%(126명), ‘農業’ 기재자가 약 65%(249명)였다.

94) ‘農’ 기재자가 약 52%(306명), ‘農業’ 기재자가 약 33%(193명), ‘土/農業’ 병기자가 1명 등이다.

95) ‘儒’ 기재자가 35명이었고, ‘儒生’ 기재자가 5명, ‘儒業’ 기재자가 2명 등이다.

96) ‘商’ 기재자가 33이었고, ‘商業’ 기재자가 2명이다.

97) ‘二業’에서 ‘二’자는 호적 기재자의 필체를 감안하여 ‘工’자로 판독할 수도 있을 듯하다.

98) 寡女 호주는 43세로 75세의 ‘生母’와 단둘이서 1칸짜리 본인 소유의 초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품을 팔면서 친 노모를 모시고 생계를 이어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四祖 기재에서 父만 유일하게 ‘媼’자를 표기하였다. 이러한 표기는 다른 과부 호주 2명에게서도 확인된다.

99) ‘傭’을 제외한 여성(과부) 호주 12명의 직업은 ‘農’이 8명이었고, 나머지 4명은 직업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여성 호주는 순녕사 호적에 등재된 전체 16개 리 가운데 大黑石里

가택 양상은 요덕사의 경우 492호(8호 가택 내용 미기재) 중 기유 와가가 약 22%(110호),¹⁰⁰⁾ 기유 초가가 약 92%(451호),¹⁰¹⁾ 차유 와가가 3호, 차유 초가가 4호 등이었다. 그런데 기유 와가 거주자가 기유 초가나 차유 초가를 생활 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 오로지 기유 와가에서만 거주한 호주는 약 8%(38호)였으며, 오로지 기유 초가에서만 거주한 호주는 약 76%(376호)로 나타났다. 다음, 운곡사의 가택 분포는 387호(8호 가택 내용 미기재) 중 기유 와가가 약 20%(79호),¹⁰²⁾ 기유 초가가 약 83%(322호),¹⁰³⁾ 차유 와가가 3호, 차유 초가가 9호 등이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유 와가와 초가, 또는 차유 와가 및 초가를 생활 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 오로지 기유 와가에서만 거주한 호주는 약 15%(57호)였으며, 또한 오로지 기유 초가에서만 거주하는 호주는 약 77%(298호)로 나타났다. 끝으로 순녕사에서 595호(9호 가택 내용 미기재) 중 기유 와가가 13%(76호),¹⁰⁴⁾ 기유 초가가 약 97%(575호),¹⁰⁵⁾ 차유 와가가 4호 등으로 분포하였다. 그렇지만 이 역시 오로지 와가에서만 거주하는 호주는 약 3%(15호)에 불과했으며, 오로지 기유 초가에서만 거주하는 호주는 약 86%(513호)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개 社 전체 양상은 오로지 기유 와가에서만 거주한 호주가 약 7%(110호), 기유 초가에서만 거주한 호주가 약 81%(1,187호)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가택 양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1칸이나 2칸 규모의 작은 집에서 거주하는 호가 적잖이 확인되는 점이다. 전체로는 약 15%(214호)가 2칸 규모 이하에서 거주하였는데, 요덕사는 2칸 규모가 약

(7명), 小黒石里(4명), 雙花山里(2명) 등에서만 나타났다. 순녕사 내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발견된다.

100) 기유 와가 110호 중 기유 초가를 공유한 호가 70호, 차유 와가와 초가를 공유한 호가 각 1호였다.

101) 기유 초가 451호 중 기유 와가를 소유한 호가 70호였으며, 차유 와가를 공유한 호가 2호, 차유 초가를 공유한 호가 3호였다.

102) 기유 와가 79호 중 기유 초가를 공유한 호가 21호, 차유 초가를 공유한 호가 1호였다.

103) 기유 초가 322호 중 기유 와가를 소유한 호가 21호였으며, 차유 와가를 공유한 호가 1호, 차유 초가를 공유한 호가 2호였다.

104) 기유 와가 75호 중 기유 초가를 공유한 호가 61호였다.

105) 기유 초가 575호 중 기유 와가를 소유한 호가 61호였으며, 차유 와가를 공유한 호가 1호였다.

8%(37호), 운곡사는 2칸 규모가 약 19%(73호), 그리고 순녕사에서는 1칸 규모가 약 3%(16호), 2칸 규모가 약 15%(88호) 등이었다.¹⁰⁶⁾

3개 社 전체의 동거친속에서는 여아 인구가 다수 등재되었으며 거의 모두가 연령을 기재하고 있었다. 연령을 기재하지 않은 여아 인구는 ‘未嫁’라고 표기하고 있었다.¹⁰⁷⁾ 그리고 여성 인구 중 母·叔母·妻·兄/弟嫂·子婦·姪婦·孫婦 등 호주 집안과 혼인하여 동거하는 경우는 모두 연령을 기재하지 않았다. 한편, ‘甲午改革’(1894년)으로 奴婢制가 혁파된 지 3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호적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奴婢를 동거친속란에 등재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확인되는 노비는 노 1명과 비 10명이다. 노비를 소유한 上典戶는 모두 11호로 확인되어 각 호마다 1명씩의 노비만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비를 소유한 상전호는 1호(운곡사. 비 소유)를 제외하고 10호 모두 순녕사에 거주하였다.

한편, 註明란에 어느 한 호가 호적에 등재되거나, 어느 한 인물이 호주로 등재된 시점 또는 경위를 밝힌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예컨대 ‘정묘년에 호적에 등재되었음(丁卯立籍)’, ‘부가 사망해서 갑오년에 (호주로) 호적에 등재되었음(父故代甲午立籍)’, ‘남편이 사망하여 대신 처 정씨가 (호주로) 호적에 등재되었음(夫故代妻鄭氏立籍)’,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떠나가서 대신 김기석이 갑자년에 (호주로) 호적에 등재되었음(流散

106) 현재 신식호적이 남아있는 북한 지역 25개 郡 중 永興 외 지역에서 2칸 규모 이하가 확인되는 곳은 경기도의 開城(2칸 14호: 전체 호 대비 약 3%)·豐德(2칸 4호: 전체 호 대비 약 2%), 강원도의 通川(2칸 7호: 전체 호 대비 약 2%)·淮陽(2칸 16호: 전체 호 대비 약 4%)·伊川(2칸 151호: 전체 호 대비 약 25%), 황해도의 谷山(2칸 3호: 전체 호 대비 약 1%)·黃州(2칸 79호: 전체 호 대비 약 21%)·甕津(2칸 2호: 전체 호 대비 약 0.3%)·海州(2칸 41호: 전체 호 대비 약 14%), 평안남도의 順川(① 1897년 2칸 24호, ② 1905년 2칸 4호: 이상, 전체 호 대비 평균 약 4%)·陽德(2칸 7호: 전체 호 대비 약 3%)·孟山(2칸 18호: 전체 호 대비 약 7%), 평안북도의 義州(1칸 2호, 2칸 23호: 이상, 전체 호 대비 약 9%)·慈城(2칸 167호: 전체 호 대비 약 24%)·定州(① 1899년 2칸 28호, ② 2칸 26호: 이상, 전체 호 대비 평균 약 7%)·龜城(2칸 7호: 전체 호 대비 약 1%)·博川(2칸 12호: 전체 호 대비 약 4%), 함경남도의 端川(2칸 15호: 전체 호 대비 약 6%), 함경북도의 茂山(2칸 1호: 전체 호 대비 약 0.2%) 등 19개 군이었다. 그런데 1칸 규모의 가택이 확인된 곳은 義州 단 한 곳뿐이었으며(2호, 0.7%), 2칸 규모 가택의 비율 또한 永興보다 높게 나타난 곳은 3곳(강원도 伊川, 황해도 黃州, 평안북도 慈城)뿐이었다. 따라서 永興郡 신식호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가택 양상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07) ‘未嫁’ 표기 여아는 총 341명이 확인되는데, 요덕사에 35명, 운곡사에 50명, 순녕사에 256명이었다.

代金基碩甲子立籍)’ 등과 같다.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한말 호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商人 호주를 타지역과 통계적으로 비교한 박희진의 논문 단 한 편이 확인된다(본 논문의【부록】‘6. 함경남도’ 참조).

② 端川郡 신식호적은 일본 京都大學 總合博物館에 소장된 1896년(건양 1) 작성 新滿面 6개 리 거주 244戶에 대한 자료이다. 호적에서 확인되는 각 리별 현황은 新洞里(49호), 龍川里(37호), 貞洞里(34호), 石隅里(43호), 安時洞里(43호), 嘉坪里(38호) 등이다.¹⁰⁸⁾

호주 241명(3명은 직업 미기재)의 직업 분포는 ‘儒’가 약 49%(119명), ‘農’이 약 46%(112명), 이밖에 ‘仕’가 약 3%(7명), ‘司果’가 약 1%(3명) 등으로 나타났다. 동거친속에서는 ‘九寸叔’, ‘九寸侄’, ‘八寸兄·弟’, ‘七寸叔’, ‘七寸叔母’, ‘七寸侄’, ‘六寸妹’ 등은 물론, 그 촌수를 알 수 없는 ‘族弟’와 ‘族姪’까지 매우 다양하고 범위가 넓은 친족이 등재되었다. 그리고 ‘率’이라고 기재한 사람들도 동거친속에 등재되었다. 또한 ‘남의 집에서 한식구처럼 의지하며 사는’ 寄口 인구가 약 18%의 적잖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택 양상은 243호(1호는 가택 내용 미기재) 중 약 98%(239호)가 기유에서 거주하였고, 차유는 단 4호(모두 초가)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기유 가택 중 와가가 약 49%(116호)였으며, 초가가 약 51%(123호)로 나타나 신식호적 자료가 남아있는 다른 지역의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와가의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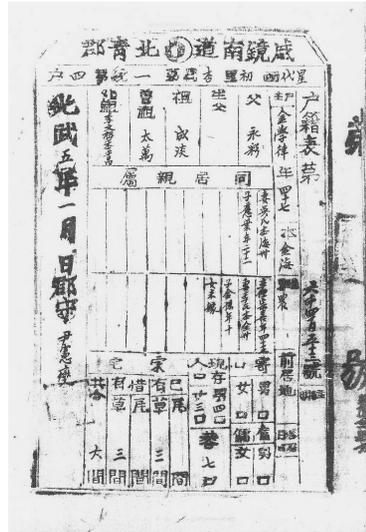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3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6. 함경남도’ 참조), 山內民博과 임학성은 호적에 등재된 주민들의 전반적 양상을 분석하였고, 박희진은 한말 호적에 보이는 商人 호주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자료로 삼았다.

108) 『端川郡誌』(1899년 편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0982) 里社條를 보면, 단천은 新滿社 등 총 9개 社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89년경에 편찬된 『戶口總數』 제9책(奎1602-v.9) 咸鏡道 端川 자료에서는 新滿社의 호수가 225戶였으며, 리는 新德里, 新洞里, 龍川里, 貞洞里, 鬲毛老里, 安時洞里, 萬城里, 新城里 등 8개였다고 한다. 한편, 『韓國戶口表』(1907년) 자료에서는 新滿社의 주민 호수가 430戶로 나타났다.

③ 北靑郡 신식호적은 일본 學習院大學 圖書館에 소장된 1901년(광무 5) 작성 星堡面 5개 리 거주 403戶에 대한 자료이다(〈사진 10〉 참조).¹⁰⁹⁾ 호적에서 확인되는 각 리별 현황은 初里(151호),¹¹⁰⁾ 水西里(43호), 坪里(36호), 朝陽里(47호), 三里(126호) 등이다.¹¹¹⁾

호주 402명(1명은 직업 미기재)의 직업 분포는 ‘農’이 약 86%(346호), ‘儒’가 약 7%(27호), ‘出身’이 약 4%(17호), ‘折衝(將軍)’이 약 2%(7호), 이밖에 ‘仕’가 3호, ‘武科’와 ‘嘉善(大夫)’가 각 1호씩으로 나타났다.

동거친속에서는 호주의 女나 孫女·曾孫女 등이 다수 등재되었지만, 子나 孫子와 달리 연령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혼기가 찬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딸이나 손녀들에게 ‘未嫁’를 표기하고 있는 양상도 다수 확인되었다.¹¹²⁾ 한편, 양단으로 구분되어있는 동거친속란에서 상단에는 호주의 가족을, 하단에는 ‘率’人들을 기재하고 있었다(〈사진 10〉 참조). 이들 ‘率’人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로 분석되었다. 먼저, ① ‘率妻’·‘率子’·‘率祖’·‘率叔’·‘率兄·弟’·‘率姪’·‘率婦’ 등처럼 호주의 가족에게 ‘率’자를 표기한 경우이다. 다음 ‘率○○○’·‘率○○○妻’·‘率○○○子’·‘率○



〈사진 10〉 1901년 北靑郡 星代社 호적

109) 자료 표지에는 ‘星堡面’으로 표기하였고, 호적표에서는 ‘星代(面)’으로 표기하였다.

110) 5개의 리 가운데 유일하게 初里 호적에서만 관할 洞을 기재하였는데 杏洞 한 개였다.

111) 『北靑郡邑誌』(1899년 편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10979) 社里條를 보면, 북청은 星代社 등 총 20개 社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89년경에 편찬된 『戶口總數』 제9책(奎1602-v.9) 咸鏡道 북청 자료에서는 星代社의 호수가 435戶였으며, 리는 一里, 二里, 三里, 四리의 4개였다고 한다. 한편, 『韓國戶口表』(1907년) 자료에서는 星堡社의 주민 호수가 무려 1,321戶로 나타났다.

112) 호주의 女·孫女·曾孫女·姪女 등은 총 258명이 등재되었는데, 이 가운데 ‘未嫁’로 표기된 비율은 약 65%(167명)나 되었다.

○○女'와 같이 표기된 경우인데, 이러한 유형은 ② 호주와 성씨·본관이 같거나 호주의 母·妻·婦 등과 성씨·본관이 같아서 친인척으로 보이는 경우와 ③ 호주 및 그 가족과 전혀 무관한 성씨·본관을 가진 경우로 구분된다. 또한 동거친속에 기재된 미성년 남자 중에는 '厔伊', '厔石', '初厔', '甲午厔', '己亥厔', '八月厔', '五凡厔', '萬金厔', '高介厔', '金介同', '國師同', '風師同', '岩回', '元岩回', '劍岩回', '凡岩回', '作力釧', '億年釧' 등처럼 다른 지역의 신식호적 자료에서는 보기 힘든 고유어 인명이 적잖이 확인되었다.

가택 양상은 기유 및 차유의 와가와 초가가 모두 나타났는데, 기유 와가가 약 34%(138호), 기유 초가가 약 66%(266호), 차유 와가가 약 6%(23호), 차유 초가가 약 66%(265호) 등이었다. 그런데 기유 와가는 물론 기유 초가에서 거주하는 호에서도 차유 와가 및 초가를 함께 생활 공간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기유 와가 거주자 138호 가운데 초가를 차유한 것이 약 70%(97호), 기유 초가 거주자 266호 가운데 초가를 차유한 것이 약 63%(168호)나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유 와가 거주자가 와가는 물론 초가까지 차유한 경우, 기유 초가 거주자가 역시 와가와 차유를 함께 차유한 경우 등도 일부 확인되었다. 양상이 이러하다 보니 생활 공간으로 삼은 가택의 규모가 6칸 이상(~최대 18칸)이 무려 71%(287호)나 되었다.¹¹³⁾ 이는 앞에서 살핀 동거친속에 등재된 인구 규모에 기인한 것으로 호 내 인구 구성(동거?)의 분포가 2~4명 규모가 7%(28호) 정도에 불과한 반면, 5~9명 규모가 약 58%(232호), 10~19명 규모가 약 35%(143호) 등으로 나타났다. 역시 '대가족' 형태가 다수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5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6. 함경남도' 참조), 박희진은 한말 호적에 보이는 商人 호주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자료로 삼았다. 이정주(4편)는 자료에서 확인되는 '率戶'의 양상과 성격, 그리고 주민의 호구와 가택 양상 전반, 여성 호주 및 첩·과부·환관,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 양상 등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113) 403호 가택 중 3~5칸 규모가 약 29%(116호), 6~9칸 규모가 약 59%(239호), 10~18칸 규모가 약 12%(48호) 등이었다.

(7) 함경북도 지역 자료

함경북도의 신식호적 자료는 총 2곳(鏡城, 茂山), 3책이다.¹¹⁴⁾

① 鏡城郡 신식호적은 일본 學習院大學 圖書館에 소장된 1901년(광무 5) 작성 朱南面 二里(11개 洞) 거주 432戶에 대한 자료이다.¹¹⁵⁾ 호적에서 확인되는 二里 관할 11개의 洞의 현황은 英岩洞(25호), 一鄉洞(49호), 二鄉洞(77호), 三鄉洞(53호), 山水南洞(38호), 五鄉洞(29호), 六鄉洞(26호), 七鄉洞(51호), 八鄉洞(31호), 九鄉洞(27호), 新鄉洞(26호) 등이었다. 대체로 洞名을 ‘鄉洞’ 앞에 ‘一’, ‘二’, ..., ‘九’처럼 숫자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호주 431명(1명은 직업 미기재)의 직업 분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거의 직업란에 ‘職’에는 전근대 방식의 職役을, 그리고 ‘業’에는 근대 방식의 職業(士·農·工·商 등)을 병기하였다. 직업을 ‘農’으로 기재한 호주가 약 79%(339명)로 가장 많았는데, 직역 기재 없이 ‘農’만을 기재한 자는 약 3%(14명)에 불과했고 직역인 ‘幼學’을 병기한 자가 약 66%(283명)로 나타났다. 이밖에 ‘農’과 함께 ‘嘉善(大夫)’, ‘通政(大夫)’, ‘折衝(將軍)’, ‘司果’, ‘軍官’, ‘權管’, ‘參奉’, ‘出身’, ‘入格’, ‘閑良’, ‘營武’, ‘營旗’, ‘府旗’, ‘童蒙’, ‘驛吏’, ‘巫男’ 등 다양한 직역을 병기한 자들이 확인되었다.¹¹⁶⁾ ‘農’을 기재하지 않은 호주들 중에는 ‘幼學’과 ‘士’를 병기한 경우가 약 15%(65명), 단지 ‘幼學’만을 기재한 경우가 약 3%(12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주 모두 四祖의 직역을 기재하였는데 ‘學生’을 기재한 경우가 약 82%(부), 약 84%(조부), 약

114) 茂山郡 자료가 2책 3面/社(邑面社, 龍面社·海面社)이고, 鏡城郡 자료는 1책 1면이 전하고 있다.

115) 『關北邑誌』(1872년 편찬) 제3책 「新增鏡城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0995-v.3) 鄉社條를 보면, 경성은 총 6개 社로 구성되었는데 ‘朱南面’은 보이지 않고 ‘朱村社’가 확인된다. 주촌사의 호수는 1,707호였다고 한다. 『戶口總數』(1789년경 편찬) 제9책(奎 1602-v.9) 咸鏡道 경성 자료에서도 6개 社 가운데 ‘朱村社’가 확인되며, 관할 리는 接王里, 中鄉里, 都鄉里, 中坪里, 院洞里, 樺谷里, 高山里, 龍淵里, 龍巖里, 書巖里, 楊橋巖里, 松雉洞里, 沙器窰里, 日彥里, 梨坡里, 大門洞里, 所要項里, 地多只里, 營田洞里, 五柳洞里, 文巖里, 回門里, 千年里, 花隅里, 中坪里, 驛坪里, 館前里 등 27개, 호수는 1,318호였다. 한편, 『韓國戶口表』(1907년) 자료에서는 8개 面 가운데 ‘朱南面’이 확인되며 호수는 2,483호로 나타났다.

116) ‘農’과 함께 ‘安川府院君後裔’를 병기한 호주도 확인된다. 安川府院君은 韓卿(본관 安邊)으로 조선 太祖 임금의 正妃인 神懿王后의 부친이다. 신의왕후가 함경도 永興에서 출생한 것으로 볼 때, 안천부원군의 후예들이 함경도 일대에서 世居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호적에서 확인되는 안천부원군 후예는 韓應疇(72세, 본관 안변)로 증조의 직역은 ‘義陵參奉’, 즉 함경도 咸興 소재 度祖(조선 태조의 조부) 陵寢의 참봉으로 나타났다.

81%(증조), 약 88%(외조)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거친속에서는 여아 인구가 다수 등재되었으며, ‘九寸叔’·‘八寸弟’·‘七寸姪’·‘六寸妹’ 등과 같이 그 친족 범위가 넓은 가족들도 등재되었다. 그리고 그 촌수를 알 수 없는 ‘族’人들(‘族祖母’·‘族母’·‘族兄·弟’·‘族姪’ 등)도 적잖이 확인되었다.

가택 양상은 기유 초가가 약 91%(392호)로 가장 많았으며, 기유 와가가 약 9%(38호), 이밖에 차유가 2호(와가와 초가 각 1호)였다. 그런데 기유 와가의 경우 모두 8칸[間]으로 나타났으며,¹¹⁷⁾ 기유 초가는 최소 5칸에서 최대 14칸까지 나타났다.¹¹⁸⁾ 그 분포는 6칸이 약 53%(229호)로 가장 많았으며, 8칸이 약 31%(132호), 5칸이 약 7%(30호), 14칸이 1호 등이었다. 따라서 20세기 초 경성군 주남면 二里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대체로 넓은 규모의 가택에서 생활했음을 알 수 있는데, 호적에서 확인되는 동거가족 또한 2~4명 규모가 약 29%(124호), 5~9명 규모가 약 57%(247호), 10~16명 규모가 약 14%(61호) 등으로 나타나 대체로 ‘대가족’ 형태가 다수를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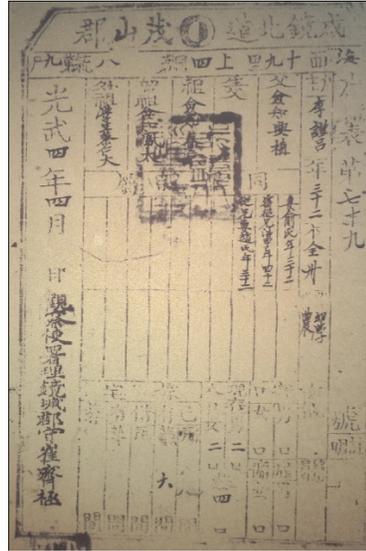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5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7. 함경북도’ 참조), 박희진은 한말 호적에 보이는 商人 호주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자료로 삼았다. 이정주(4편)는 戶稅와 관련한 주민의 호구와 가택 양상 전반, 그리고 여성 호주 및 첩·과부·환관,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 양상 등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② 茂山郡 신식호적은 일본 學習院大學 圖書館에 소장된 1900년(광무 4) 작성 2책으로 한 책은 邑面社, 다른 한 책은 龍面社와 海面社 지역의 호적이다(<사진 11> 참조). 이들 3개 면 호적에서는 모두 한 개의 리만이 확인되며, 읍면사는 ‘一里’(17개 洞) 거주 324戶, 용면사는 ‘十八里’(7개 洞) 거주 108戶, 해면사는 ‘十九里’(5개 洞) 거주 108戶 등, 총 540戶의 주민이 등재되어 있다.¹¹⁹⁾

117) 차유 와가는 6칸이었다.

118) 차유 초가는 6칸이었다.

호주 총 540명 모두 직업란에 ‘職’과 ‘業’을 구분하여 전근대 인신 파악 방식인 직역과 근대 업종 파악 방식인 직업을 병기하고 있었다. 호주의 四祖도 모두 직역을 기재하였는데, ‘學生’으로 기재한 경우가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호주의 직업 분포는 직업에 ‘農’을 기재된 호주가 약 96%(515명)였으며, 그 가운데 직역을 ‘幼學’으로 병기한 자가 약 87%(468명), ‘出身’으로 병기한 자가 약 4%(21명), 이밖에 ‘僉知’(8명), ‘同知’(4명), ‘司果’·‘業武’(이상, 각3명), ‘主事’(2명), ‘僉使’·‘武科’·‘童蒙’·‘折衝(將軍)’ 등을 병기하고 있었다. ‘農’이 아닌 호주들은 ‘士+幼學’(12명), ‘儒+幼學’(5명), ‘士+入格’·‘武+宣薦’(이상, 각 2명), ‘儒+入格’·‘武+別將’·‘武+出身’·‘郡守+在職’(이상, 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역을 ‘幼學’으로 기재한 자의 비율도 약 90%(485명)나 되었다.



〈사진 11〉 1900년 茂山郡 龍面社 호적

동거친속에서는 친인척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여아 인구도 다수 등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동거친속에 ‘寡兄·弟嫂’, ‘寡子婦’, ‘寡侄婦’ 등과 같이 ‘寡’자를 표기하여 과부임을 명시한 경우가 적잖이 확인되었다. 한편, ‘寄’자를 표기한 자들이 동거친속에 등재되었는데, ‘寄子’·‘(寄)子婦’·‘(寄)孫子’, ‘寄弟’·‘(寄)弟嫂’·‘(寄)姪子’, ‘寄從弟’·‘(寄)從弟嫂’·‘(寄)從

119) 무산군의 面 관할 里와 洞의 명칭은 모두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茂山郡邑誌』(1899년 편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10999) 坊里條를 보면, 무산은 邑社(324호), 龍面社(108호), 海面社(108호) 등 총 19개 社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호수는 1900년 호적에 등재된 수치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戶口總數』(1789년경 편찬) 제9책(奎1602-v.9) 咸鏡道 무산 자료 역시 19개 社로 확인되는데, 邑面社는 1개 리(一里)에 473호, 海面社는 1개 리(一里)에 120호, 龍面社는 1개 리(一里)에 310호 등이었다고 한다. 『韓國戶口表』(1907년) 자료에서는 海面社는 보이지 않고 邑面社는 358호, 龍面社는 108호였다.

姪子'·'(寄)從姪女' 등처럼, 호주의子是 물론 弟, 姪子·女, 孫子 등에게도 '寄'를 표기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첨부한 <사진 11>에서 보듯이, 호주(李謹呂, 32세)의 從兄(浩甲, 42세) 가족('從兄妻' 趙氏, 32세)이 동거친숙에 '寄'로 등재되어 있었다.

가택 양상은 기유 와가가 약 26%(139호), 기유 초가가 약 72%(387호), 차유 와가가 약 0.7%(4호),¹²⁰⁾ 차유 초가가 약 2%(10호)¹²¹⁾ 등으로 나타났다. 기유 가택의 비율이 약 97%(526호)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가택 양상에서 3개 社 간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기유 와가는 해면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해면사 전체 가호 108호 대비 약 42%, 45호). 따라서 해면사에서의 기유 초가는 약 58%(63호)로 적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4편이 확인되는데(본 논문의【부록】'7. 함경북도' 참조), 박희진은 한말 호적에 보이는 商人 호주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자료로 삼았으며, 이정주(3편)는 여성 호주, 첩·과부·환관,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 양상 등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이상, 현전하는 북한 지역의 호적 자료의 현황과 자료에 담긴 인구·가택의 기본 내용 및 일부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도 누차 언급된 바 있듯이, 북한 지역의 신식호적 자료들에서 확인되는 주민 및 가택 양상은 남한 지역과 비교할 때 다양하고 다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조선왕조 5백여 년간 국가 운영의 인적·물적 자원이 아무래도 漢城·경기도 및 三南지방(충청·전라·경상)에 집중되었던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양태 또한 남·북한 지역간 적잖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신식호적이 남아있는 이들 25개 郡은 당시(1896년 기준) 북한 지역 전체 103개 군의 약 24% 정도에 해당한다(<표 5> 참조). 도별로는 경기도에서 100%, 강원도에서 약 33%, 황해도에서 약 26%, 평안북도에서 약 24%, 함경

120) 4호 모두 읍면사에서 발견되었다.

121) 읍면사에서 3호, 용면사에서 7호가 발견되었다.

남도에서 약 21%, 함경북도에서 약 20%, 그리고 평안남도에서 약 17% 정도가 남아있다.

〈표 5〉 북한 지역 현전 신식호적의 郡別 분포 현황(1896년 기준)

道	북한 지역 郡名	郡數	현전 ‘新式戶籍’ 郡名	郡數
경기도	開城, 豐德	2	開城, 豐德	2 (100%)
강원도	淮陽, 伊川, 通川, 歙谷, 高城, 金化, 金城, 平康, 安峽	9	淮陽, 伊川, 通川	3 (33.3%)
황해도	黃州, 海州, 鳳山, 谷山, 殷栗, 甕津, 安岳, 平山, 延安, 瑞興, 長淵, 載寧, 遂安, 白川, 信川, 金川, 文化, 豐川, 新溪, 長連, 松禾, 兔山, 康翎	23	黃州, 海州, 鳳山, 谷山, 殷栗, 甕津	6 (26.1%)
평안남도	德川, 順川, 陽德, 孟山, 平壤, 中和, 龍岡, 成川, 咸從, 三和, 祥原, 永柔, 江東, 江西, 安州, 慈山, 肅川, 价川, 寧遠, 殷山, 三登, 甌山, 順安, 鎮南浦	24	德川, 順川, 陽德, 孟山	4 (16.7%)
평안북도	義州, 定州, 博川, 慈城, 龜城, 江界, 寧邊, 宣川, 楚山, 昌城, 龍川, 鐵山, 朔州, 渭原, 碧潼, 嘉山, 郭山, 熙川, 雲山, 泰川, 厚昌	21	義州, 定州, 博川, 慈城, 龜城	5 (23.8%)
함경남도	端川, 永興, 北青, 咸興, 德源, 安邊, 定平, 三水, 甲山, 長津, 利原, 文川, 高原, 洪原	14	端川, 永興, 北青	3 (21.4%)
함경북도	鏡城, 茂山, 慶興, 吉城, 會寧, 鍾城, 慶源, 穩城, 富寧, 明川	10	鏡城, 茂山	2 (20.0%)
계	-	103 (100%)	-	25 (24.3%)

그러면 이들 북한 지역의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 성과는 어느 정도였을까? 아래 〈표 6〉의 정리 내용을 보면, 구식호적은 총 6편, 신식호적은 총 97편에 달한다. 구식호적은 아무래도 북한 지역의 호적 자료가 희소하였기에 연구자의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식호적의 경우도 자료가 남아있는 지역이 총 25개 郡이라는 점에 비하면 적잖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연구의 대다수가 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필요한 요소(예를 들어 상인호, 첩, 과부호, 여성, 성별·연령별 구조 등)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다 보니, 분석한 호적 자료의 지역이 어느 한 개의 군/면을 벗어나 북한 지역 전체를 취급하기도 하여 각 지역별 연구 편수가 중복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표 6〉 북한 지역 호적 자료의 분석 논문 현황

지역 \ 유형	‘舊式戶籍’	‘新式戶籍’
경기도	-	開城(6편), 豐德(3편) <9편>
강원도	金化(2편), 伊川(2편) <4편>	通川(4편), 淮陽(4편), 伊川(1편) <9편>
황해도	-	谷山(2편), 黃州(4편), 甕津(6편), 海州(4편), 鳳山(4편), 殷栗(5편) <25편>
평안남도	中和(2편) <2편>	順川(4편), 德川(5편), 陽德(4편), 孟山(1편) <14편>
평안북도	渭原(0편)	義州(4편), 慈城(5편), 定州(6편), 龜城(5편), 博川(2편) <22편>
함경남도	-	永興(1편), 端川(3편), 北靑(5편) <9편>
함경북도	-	鏡城(5편), 茂山(4편) <9편>
계	6편	97편

따라서 어느 한 시기/지역의 호적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호적에 담겨 있는 주민 및 가택 양상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연구만을 추리면 12개 지역(군)의 15편 정도가 된다. 지역 및 편수, 연구자를 보면,¹²²⁾ 황해도의 谷山(봉명면) 1편(우희정) · 殷栗 1편(이정주) · 甕津 2편(임학성), 평안남도의 順川 1편(이정주) · 孟山 1편(山內民博), 평안북도의 龜城 1편(이정주) · 慈城 1편(이정주) · 定州 2편(이유진) · 博川 1편(김영호), 함경남도의 端川 2편(山內民博, 임학성) · 北靑 1편(이정주), 그리고 함경북도의 鏡城 1편(이정주) 등이다. 다시 이를 도별로 정리하면 황해도 3개 군(4편), 평안남도 2개 군(2편), 평안북도 4개 군(5편), 함경남도 2개 군(3편), 함경북도 1개 군(1편) 등이 된다. 아직 절반 정도 지역의 호적 자료가 구체적인 연구에 활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22) 연구 논문의 제목은【부록】참조.

3. 북한 지역 集團傳記學 연구 자료로서의 호적의 가치 - 맺음말을 대신하여

호적 자료는 어느 한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의 財政史과 對民統制, 人口史, 生活史 등을 파악하는 데 최적의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한국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호적 자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그 성과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런데, 연구 대상 지역이 주로 남한 지역, 그것도 경상도에 치중되면서 연구의 불균형을 이룬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근대 초기에 생산된 북한 지역의 호적 자료는 그동안의 연구사적 불균형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현전하는 북한 지역의 25개 군, 36책의 신식호적 자료에는 1만여 戶, 5만여 명의 인물 및 가택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표 7> 참조).

<표 7> 북한 지역 '신식호적'에 등재된 주민수

지역		호수	인구수
경기도	開城	413	1,479
	豊德	210	833
	소계	623戶	2,312口
강원도	伊川	614	2,794
	通川	418	1,785
	淮陽	378	1,202
	소계	1,410戶	5,781口
황해도	海州	305	997
	鳳山	259	1,447
	殷栗	266	1,186
	黃州	370	1,189
	甕津	789	3,269
	谷山	397	1,846
	소계	2,386戶	9,934口
평안남도	孟山	248	926
	順川	663	2,062
	德川	225	944
	陽德	228	949
	소계	1,364戶	4,881口

지역		호수	인구수
평안북도	義州	278	981
	慈城	691	2,577
	定州	387	1,624
	龜城	548	2,314
	博川	332	1,644
	소계	2,236戶	9,140口
함경남도	永興	1,499	7,269
	端川	244	2,339
	北靑	403	3,417
	소계	2,146戶	13,025口
함경북도	鏡城	432	2,691
	茂山	540	3,312
	소계	972戶	6,003口
계	11,137戶	51,076口	

물론 신식호적뿐만 아니라 현전하는 구식호적에서도 약 2천여 戶에 등재된 수많은 인물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호적 자료에 담긴 이러한 인물 정보가 바로 북한 지역의 집단전기학 연구 자료로서 최적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역시 수많은 인물 정보를 담고 있는 榜目 자료(司馬榜目, 文科榜目, 武科榜目 등)와 읍지 자료(人物條, 仕宦條 등) 등을 호적 자료와 연계할 경우, 인물 집단의 수는 더 확대될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충실해질 것이다. 하나의 예로 함경북도 鏡城郡 朱南面の 1901년 호적에서 二里 五鄉洞 제 26통 제4호에 거주한 호주 李秉善(54세, 本公州)의 경우 직업을 ‘士+進士’로 기재하였다. 이에 司馬榜目 자료를 찾아본 결과, 1885년(고종 22)에 실시된 增廣試에서 ‘進士 3等’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¹²³⁾ 진사 합격 전 직역은 ‘幼學’이었으며 합격 당시 나이는 38세였다. 아울러 1899년(광무 3)에 편찬된 『鏡城郡邑誌』¹²⁴⁾ 生進條에서도 ‘李秉善(今存)’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방목과 읍지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李秉善에 관한 인물 정보를 호적 자료에서는 더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그의 四祖인 ‘學生 彙模’(부) · ‘持平 亨泰’(조부) · ‘學生 愉’(증조부) · ‘學生 崔南龜’(외조부)과, 세 명의 아들 ‘鍾華’(1866년생) · ‘鍾慶’(1873년생) · ‘鍾五’(1878년생) 등이 그러하다. 아울러 이병선은 세 아들 부부들과 미혼의 딸, 손자 · 손녀 등 총 14명의 대가족이 본인 소유의 8칸 규모 기와집에서 생활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호적 자료를 집단전기학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방법의 하나가 족보 자료와의 연계 작업이다. 호적 자료가 戶首/戶主의 四祖(외조를 제외하면 三祖) 정보만을 수록하고 있어 같은 姓貫의 인물들이라도 三祖의 범위를 벗어나면 해당 호적 자료상으로는 그 친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에, 이러한 한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료가 바로 족보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례로 구식호적과 신식호적이 남아있는 강원

12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12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10994).

도 伊川의 경우, 1687년 호적의 下西面 遷下里 제1통 제1호와 제2호에 등재된 平昌 李氏 친족이 확인되었고,¹²⁵⁾ 1907년 호적의 山內面 下地里와 小峴里 지역에서도 평창 이씨 친족들이 다수 등재된 것이 확인되었다.¹²⁶⁾ 두 호적 자료 간에 200여 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 일단 이들 평창 이씨의 친족 연계 여부는 호적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족보 자료를 통해 17세기 말과 20세기 초 두 호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이들 평창 이씨들이 모두 1687년 호적에서 李馨郁(1610년·庚戌生)의 부로 기재된 李遇春의 후손들이었음을 추적할 수 있었다.¹²⁷⁾ 특히 1907년 호적에 등재된 李基鉉(下地里 제16통 제4호)·李基舜(下地里 제17통 제2호)·李桂辰(小峴里 제17통 제5호)·李桂成(小峴里 제17통 제6호)·李興雲(小峴里 제17통 제7호)

125) 제1통 제1호에 등재된 평창 이씨 가족은 業武 李德厚(27세·辛丑生)가 戶首로 妻 寧越 崔氏(30세·戊戌生)와 弟 幼學 德齡(16세·壬子生), 弟嫂 長城 徐氏(19세·己酉生), 弟 德年(12세·丙辰生) 등이 동거하고 있었다. 四祖는 父 宣翼將軍行龍驤衛副司果 時郁, 宗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遇春, 증조 將仕郎 鵬壽, 외조 學生 崔琇(本 交河) 등이었다. 제1통 제2호에는 호수 老幼學 李馨郁(78세·庚戌生)가 子 業武 德興(49세·己卯生), 婦 安城 李氏(48세·庚辰生), 子 業(武) 德潤(39세·己丑生), 婦 鐵原 宋氏(36세·壬辰生), 子 幼學 德昌(31세·丁酉生), 婦 安城 李氏(34세·甲午生) 등과 동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李馨郁의 四祖는 父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遇春, 宗 將仕郎 鵬壽, 증조 通政大夫 至誠, 외조 成均生員 韓樟(本 淸州) 등으로 나타나 제1호의 호수였던 李德厚와는 叔姪 관계였음이 확인된다.

126) 1907년 산내면 호적에서 평창 이씨 호주는 총 12명이 확인된다. 이중 下地里 제16통 제4호의 호주 李基鉉(56세, 직업 農)은 妻 金氏(51세), 子 桂明(24세), 婦 金氏(29세), 子 桂五(10세) 등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四祖는 父 彦昌, 宗 守雲, 증조 溶, 외조 朴宗福이었다. 下地里 제17통 제2호의 호주 李基舜(63세, 직업 農)은 妻 金氏(63세), 子 桂心(29세), 婦 金氏(31세), 子 桂永(22세), 婦 金氏(24세), 孫子 興連(12세) 등과 동거하고 있었는데, 사조가 李基鉉과 동일하게 나타나 둘은 형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小峴里 제17통 제5호의 호주 李桂辰(53세)은 처 崔氏(40세)와 미성년의 세 아들 興基(10세)·興實(7세)·興錫(4세) 등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사조는 父 基禧, 宗 彦冷, 증조 守雲, 외조 宋景信 등이었다. 증조 守雲이 下地里 거주 李基舜·李基鉉 형제의 조와 일치하고 있어 이들은 당숙과 당질 관계였음이 확인된다. 小峴里 제17통 제7호의 호주 李興雲(29세)은 처 郭氏(30세), 祖母 金氏(64세), 母 李氏(53세), 이름 미기재의 子(4세) 등과 동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李興雲의 사조 기재(父 桂辰, 宗 基禧, 증조 彦冷, 외조 李仁弘)와 동거한 母(李氏, 53세) 등을 통해 제17통 제5호의 호주 李桂辰의 아들이었으며, 李桂辰과 동거하던 처 崔氏는 후처, 미성년의 세 아들은 이복동생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小峴里 제17통 제6호에서 처 宋氏(50세), 父 興福(33세), 婦 金氏(30세), 父 興龍(11세), 이름 미기재의 子(9세) 등과 동거하던 호주 李桂成(50세)는 李桂辰의 동생이었다. 이밖에 사조의 이름에서 동일인이 발견되지 않은 다른 평창 이씨 호주들 가운데에서도 같은 항렬을 사용한 사례가 보여 앞에서 살펴본 호주들과 서로 친족일 가능성이 짙다고 본다.

127) 『平昌李氏世譜』(18세기 후반 편찬 추정), 평창이씨 중앙중친회(<http://pcee.co.kr/html/company/greeting.php>). 한편 족보 자료에서 확인된 이들 일가의 묘소는 모두 伊川에 소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등은 모두 李馨郁의 후손들이었던 것이다.¹²⁸⁾ 이처럼 호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친족 집단의 상당수는 그 후손들이 북한 지역에서 세거하였고 그러한 양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렇듯 호적 자료에 담긴 다양하고 생생한 인물 정보는 어느 한 지역 및 친족, 직종(직역 및 직업) 등으로 결성되는 인물 집단을 연구하는 최상·최적의 자료라 하겠다.¹²⁹⁾ 그런데 북한 지역 인물의 집단전기학 연구를 좀 더 진척시키기 위한 향후 과제는 지금까지 살펴본 成冊된 호적 자료 외에도 准戶口나 戶口單子, 낱장 戶籍表 등 상당수 남아있는 고문서 자료도 조사·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 사회과학원도서관, 조선민속박물관, 인민대학습당, 신의주력사박물관 등 북한 내 연구기관에 상당수 소장되었을 성책 및 고문서 호적 자료도 조사·활용할 필요가 있다.¹³⁰⁾ 한국과 북한은 물론, 일본 등 해외에 소장되어있는 북한 지역의 조선시대~근대 초기 호적 자료들을 전량 조사하여 총합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이다.

128) 그 계보는 ‘李瑜(1328~?)-遵道(제4자)-樅(長子)-永錫(長子)-鏞(長子)-至誠(長子)-鵬壽(長子)-愚春(長子)-馨郁(長子)/時郁(제2자)-德潤(馨郁의 제2자)-天慶(제3자)-溶(제3자)-守雲’으로 정리된다.

129) 그동안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의 대다수가 그러했지만, 집단전기학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최근(2020년 이후)의 호적 분석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韓相祐, 「임진왜란 被擄人과 逃遷人들의 흔적을 찾아서-17세기 초 호적으로부터」, 『大東文化研究』 110, 2020; 박상현, 「17-18세기 울산 내 海尺의 존재 양상과 변화 - 울산부호적대장을 중심으로」, 『島嶼文化』 5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20; 정성학, 「조선후기 향리 후손의 거주지 이동과 사회적 지위」, 『한국문화』 9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1; 한상우, 「邑誌와 榜目, 戶籍을 통해 본 대구 출신 급제자들」, 『大丘史學』 144, 대구사학회, 2021; 이정주, 「19세기 서울 지역의 생원과 진사 - 구한말 호적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3, 2021; 김현진, 「1903-1906년 漢城府 軍人 계층의 거주 특성과 성격 - 光武 7~10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110, 서울역사편찬원, 2022; 이동규, 「조선 후기 호적 속 降倭 가족의 장기시계열적 추적과 분석 - 『慶尙道蔚山府戶籍大帳』을 통하여」, 『朝鮮時代史學報』 107, 조선시대사학회, 2023; 김우리, 「18-19세기 제주지역 匠人의 호적 기재 양상 - 『東城里戶籍中草』를 중심으로」, 『사림』 87, 수선사학회, 2024; 이동규, 「조선 후기 ‘皇朝人’ 후손들의 분화 양상과 가계 전승 - 대구 두릉 두씨 두사충 가계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109, 2024.

130) 현재 북한 내 연구기관에 소장되어있는 호적 자료(성책 및 고문서)에 대해서는 목록 조사 정도의 수준으로 追稿를 발표하려 한다. 이 추고는 “북한 지역의 集團傳記學 토대 구축을 위한 호적 자료의 기초적 연구(II)”의 성격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온라인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평창이씨 중앙중친회(<http://pclee.co.kr/html/company/greeting.php>).

2. DB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구축 ‘新式戶籍’ DB.

3. 자료

『經國大典』(1485년 편찬), 『增補典錄通考』(1740~1746년 편찬 추정), 『續大典』(1746년 편찬), 『大典通編』(1785년 편찬), 『典律通補』(具允明, 1786년 편찬) 등 法典類.

『關東邑誌』(1871년 편찬), 『海西邑誌』(1871년 편찬), 『關西邑誌』(1871~1872년 편찬), 『關北邑誌』(1872년 편찬), 『關西邑誌』(1895년 편찬), 『龍灣誌(義州郡邑誌)』(1863년~1907년간 편찬), 『中京誌(開城府誌)』(19세기 말 편찬), 『谷山邑誌』(1899년 편찬), 『股栗郡誌』(1899년 편찬), 『陽德郡邑誌』(1899년 편찬), 『孟山郡邑誌』(1899년 편찬), 『慈城郡邑誌』(1899년 편찬), 『龜城郡邑誌』(1899년 편찬), 『博川郡邑誌』(1899년 편찬), 『永興郡邑誌』(1899년 편찬), 『端川郡誌』(1899년 편찬), 『北靑郡邑誌』(1899년 편찬), 『鏡城郡邑誌』(1899년 편찬), 『茂山郡邑誌』(1899년 편찬), 『德川郡邑誌』(1899년 이후 편찬) 등 地誌類(이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戶口總數』(1789년경 편찬), 『韓國戶口表』(1907년 편찬) 등 統計類.

4. 저서

金泳謨, 『韓國社會階層研究』, 일조각, 1982.

崔弘基, 『韓國戶籍制度史(改訂版)』,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한상우, 『17세기 북강원 사람들: 이천부 호적의 번역과 전산화(강원학 연구보고 12)』,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020.

『한국지명유래집 - 북한편』(1, 2),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3.

東洋文庫東北アジア研究班 編, 『日本所在朝鮮戶籍關係資料解題』, 日本 東京. 東洋文庫, 2004.

哈佛大學哈佛燕京圖書館韓國部 編, 『哈佛大學哈佛燕京圖書館 韓籍簡目三編』, 哈佛大學哈佛燕京圖書館 (Harvard-Yenching Library HARVARD UNIVERSITY), 1980.

5. 논문

김우리, 『18~19세기 제주지역 匠人의 호적 기재 양상 - 『東城里戶籍中草』를 중심으로』, 『사림』 87, 수선사학회, 2024.

김현진, 『1903~1906년 漢城府 軍人 계층의 거주 특성과 성격 - 光武 7~10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서

- 울과 역사』 110, 서울역사편찬원, 2022.
- 羅鍾一, 「集團傳記學」, 『西洋史研究』 7, 한국서양사연구회, 1985.
- 박상현, 「17~18세기 울산 내 海尺의 존재 양상과 변화 - 울산부호적대장을 중심으로」, 『島嶼文化』 5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20.
- 孫炳圭, 「대한제국기의 호적정책 - 丹城 培養里와 濟州 德修里的 사례」, 『大東文化研究』 4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 아마우치 타미히로[山内民博], 「일본 소재 한국호적의 현황과 특성」, 『仁川文化研究』 1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4.
- 우경섭, 「한국학에서 집단전기학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 『한국학연구』 7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4.
- 이동규, 「조선 후기 호적 속 降倭 가족의 장기시계열적 추적과 분석 - 『慶尙道蔚山府戶籍大帳』을 통하여」, 『朝鮮時代史學報』 107, 조선시대사학회, 2023.
- _____, 「조선 후기 ‘皇朝人’ 후손들의 분화 양상과 가계 전승 - 대구 두릉 두씨 두사충 가계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109, 2024.
- 이유진, 「19세기 말~20세기 초 친호적의 자료적 성격에 대한 고찰」, 『奎章閣』 6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 이재두, 「대한제국기 각군읍지와 『읍지대장』」, 『奎章閣』 59, 2021.
- _____, 「19세기 후반 조선왕조의 읍지 편찬」, 『朝鮮時代史學報』 103, 2022.
- 李正善, 「한국 근대 ‘戶籍制度’의 변천 - ‘民籍法’의 법제적 특징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5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09.
- 이정주, 「19세기 서울 지역의 생원과 진사 - 구한말 호적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3, 2021.
- 林學成, 「現存 16·17세기 호적대장의 특징들과 新발견 - 1666년 『濟州牧丙午式戶籍大帳 斷片』」, 『古文書研究』 26, 한국고문서학회, 2005.
- _____, 「20세기 초 西間島 거주 朝鮮人の 거주 양태 - ‘邊界戶籍’ 자료의 분석 사례」, 『한국학연구』 21, 2009.
- _____, 「20世紀初「間島」地域居住朝鮮人に対する戶籍調査 - 韓中間境界の接点 - 」, 『環日本海研究年報』 20, 日本. 新潟大學現代社會文化研究科 環日本海研究室, 2013.
- _____, 「20세기 초 西間島 거주 移住韓人들의 생활 양태 - “楚山江北戶籍”(1902) 자료의 분석 사례」, 『동북아역사논총』 46, 동북아역사재단, 2014.
- _____, 「19세기 전반 함경북도 戶籍 자료를 통해 본 어느 一家의 移住史와 土奴婢 - 중국 延邊博物館에 소장된 明川都護府 거주 李善衍의 道光 2년(1822) 准戶口 분석 사례」, 『古文書研究』 49, 2016.
- 장경준, 「大韓帝國期 戶籍資料의 基礎的 檢討」, 『博物館研究論集』 12, 부산박물관, 2007.
- _____, 「광무 연간의 호구조사, 그 연속과 변화」, 『역사와 경계』 92, 부산경남사학회, 2014.
- 장윤희, 「동아시아한국학의 심화·확산과 해외 한국학의 집단전기학」, 『한국학연구』 61, 2021.
- 정성학, 「조선후기 향리 후손의 거주지 이동과 사회적 지위」, 『한국문화』 9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1.
- 趙錫坤, 「光武年間의 戶政運營體系에 관한 小考」, 金鴻植 외,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1.
- 조일권, 「구한말 간도지방 주민에 관한 일 연구: 1902년도 변계호적의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韓相祐, 「임진왜란 被擄人과 逃還人들의 흔적을 찾아서 - 17세기 초 호적으로부터」, 『大東文化研究』 110, 2020.

韓榮國, 「朝鮮王朝 戶籍의 基礎的 研究」, 『韓國史學』 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_____, 「朝鮮 初期 戶口統計에서의 戶와 口」, 『東洋學』 1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9.

한상우, 「邑誌와 榜目, 戶籍을 통해 본 대구 출신 급제자들」, 『大丘史學』 144, 대구사학회, 2021.

山内民博, 『戶籍からみた朝鮮の周縁: 17-19世紀の社會變動と僧・白丁(新潟大學人文學研究叢書 18)』, 일본: 知泉書館, 2021.

※ 이하, 북한 지역의 호적 자료 분석 논문은 아래 【부록】 참조.

【부록】북한 지역의 호적 자료 분석 연구 논문 목록

* ‘★’ 표시 논문은 ‘舊式戶籍’ 자료의 분석 연구를 말함

1. 경기도

- 宮嶋博史, 「朝鮮甲午改革以後の商業的農業」, 『史林』 57-6, 일본. 史學硏究會, 1974(楳
村秀樹 외 · 사계절 편집부 편, 『韓國近代經濟史硏究』, 사계절, 1983에 수록).
- 吳星, 「韓末 開城地方의 戶의 構成 實態 - 인구와 가옥을 중심으로」, 『省谷論叢』 23, 성곡
학술문화재단, 1992.
- 吳星, 「韓末 開城地方의 蔘圃主」, 『古文書硏究』 3, 한국고문서학회, 1992.
- 吳星, 「韓末 開城地方의 戶의 構成과 戶主 - 南部 都助里 戶主의 職業分布와 관련하여」,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刊行委員會 編,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
史學論叢(下)』, 일조각, 1994.
- 吳星, 「韓末 京畿道地方의 戶主構成의 樣相에 관한 一試論 - 특히 姓貫 分布와 관련하
여」, 『歷史學報』 152, 역사학회, 1996.
- 박희진, 「광무호적에 나타난 상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한국학연구』 46, 인하대학교 한국
학연구소, 2017.
- 이정주, 「구한말 호적에 나타난 성별 · 연령별 인구 구조의 특징」, 『한국학연구』 46, 2017.

2. 강원도

- ★ Susan Shin, The Social Structure of *Kŭmhwa* County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Occasional Papers on Korea* v.1, 1974(「17세기 金化地域의 社會構造」
라는 제목으로 梨花女大 史學科硏究室 編譯의 『朝鮮身分史硏究』, 법문사, 1987
에 게재).
- ★ 邊柱承, 『朝鮮後期 流民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 ★ 金友哲, 「17世紀 後半 江原道 伊川의 職役 分布와 東伍軍의 兼役 實態 - 伊川 『戶籍』
의 분석」, 『軍史』 36, 국방군사연구소, 1997.
- ★ 한상우, 「17세기 북강원 사람들: 이천부 호적의 번역과 전산화(강원학 연구보고 12)」, 강
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020.
- 야마우치 타미히로[山内民博], 「건양 · 광무기 僧籍과 屠漢籍의 성격」, 『한국학연구』 29,
2013.
- 이정주, 「광무 연간 북한 지역 여성의 호적 기재 양상」, 『역사민속학』 51, 한국역사민속학
회, 2016.
- 이정주, 「광무호적에 보이는 ‘四祖 不知’ 사례 검토: 첩, 과부, 환관의 기재 양상과 관련하
여」, 『古文書硏究』 50, 2017.
- 박희진, 「광무호적에 나타난 상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한국학연구』 46, 2017.

이정주, 「구한말 호적에 나타난 성별 · 연령별 인구 구조의 특징」, 『한국학연구』 46, 2017.

3. 황해도

禹熙貞, 「19세기 말 황해도 谷山郡 住民의 사회적 실태: 건양 원년(1896) 『谷山郡鳳鳴面 戶籍案』의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이정주, 「한말 황해도 靑島郡 南上里坊 호적표로 본 가족과 마을」, 『史叢』 81,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4.

이정주, 「광무 연간 북한 지역 여성의 호적 기재 양상」, 『역사민속학』 51, 2016.

임학성, 「20세기 초 황해도 甯津郡 주민의 住居 양상-1905년도 南面과 龍淵面 戶籍 자료의 분석 사례」, 『역사민속학』 51, 2016.

이정주, 「광무호적에 보이는 ‘四祖 不知’ 사례 검토: 첩, 과부, 환관의 기재 양상과 관련하여」, 『古文書研究』 50, 2017.

박희진, 「광무호적에 나타난 상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한국학연구』 46, 2017.

이정주, 「구한말 호적에 나타난 성별 · 연령별 인구 구조의 특징」, 『한국학연구』 46, 2017.

山内民博, 「朝鮮新式戶籍關連資料の基礎的檢討(3) - 黃海道鳳山郡僧屠戶籍冊」, 『資料學研究』 15, 日本. 新潟大學現代社會文化研究科, 2018.

임학성, 「20세기 초 황해도 甯津郡 島嶼住民의 생활 양태 - 1905년도 甯津郡 南面 昌麟島 戶籍 자료의 분석 사례」, 『한국학연구』 56, 2020.

4. 평안남도

★ 林學成, 「조선 후기 戶籍자료에서 확인되는 巫覡과 廣大 · 才人들(Ⅰ)」, 『역사민속학』 2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 山内民博, 「1852年朝鮮『平安道中和府壬子式戶籍』初探」, 『資料學研究』 16, 2019.

金泳謨, 『韓國社會階層研究』, 일조각, 1982.

이정주, 「19세기말 戶籍表로 본 平安南道 順川郡 戶의 구성」, 『史叢』 84, 2015.

이정주, 「광무 연간 북한 지역 여성의 호적 기재 양상」, 『역사민속학』 51, 2016.

이정주, 「광무호적에 보이는 ‘四祖 不知’ 사례 검토: 첩, 과부, 환관의 기재 양상과 관련하여」, 『古文書研究』 50, 2017.

박희진, 「광무호적에 나타난 상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한국학연구』 46, 2017.

이정주, 「구한말 호적에 나타난 성별 · 연령별 인구 구조의 특징」, 『한국학연구』 46, 2017.

山内民博, 「朝鮮新式戶籍關連資料の基礎的檢討(4) - 國立歷史民俗博物館所藏1906年 平安南道孟山郡外南面戶籍」, 『環日本海研究年報』 27, 日本. 新潟大學現代社會文化研究科 環日本海研究室, 2022.

5. 평안북도

이정주, 「19세기 말 평안북도 구성군 家戶의 구성과 거주 양태」, 『역사민속학』 43, 2013.

- 이정주, 「1905년 작성 平安北道 慈城郡 호적 검토」, 『역사민속학』 49, 2015.
- 이유진, 「광무호적의 호구변동 사례 연구 - 광무 3, 4년 평안북도 정주군 해산면 호적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51, 2016.
- 이정주, 「광무 연간 북한 지역 여성의 호적 기재 양상」, 『역사민속학』 51, 2016.
- 이정주, 「광무호적에 보이는 '四祖 不知' 사례 검토: 첩, 과부, 환관의 기재 양상과 관련하여」, 『古文書研究』 50, 2017.
- 박희진, 「광무호적에 나타난 상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한국학연구』 46, 2017.
- 이정주, 「구한말 호적에 나타난 성별 · 연령별 인구 구조의 특징」, 『한국학연구』 46, 2017.
- 이유진, 「대한제국기 호구 변동의 의미 - 평안북도 정주군 해산면 호적대장과 목장양안 비교 분석」, 『한국학연구』 53, 2019.
- 김영호, 「20세기 초 평안북도 博川 주민의 생활 양태 - 1902년 박천군 '南面戶籍' 자료의 분석 사례」, 인하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5.

6. 함경남도

- 山内民博, 「朝鮮新式戶籍關連資料の基礎的檢討(2) - 建陽元年咸鏡南道端川郡新滿面戶籍」, 『資料學研究』 9, 2012.
- 이정주, 「1901년 작성 北靑 戶籍과 北靑郡民 소요 사건」, 『한국사학보』 53, 고려사학회, 2013.
- 이정주, 「광무 연간 북한 지역 여성의 호적 기재 양상」, 『역사민속학』 51, 2016.
- 이정주, 「광무호적에 보이는 '四祖 不知' 사례 검토: 첩, 과부, 환관의 기재 양상과 관련하여」, 『古文書研究』 50, 2017.
- 박희진, 「광무호적에 나타난 상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한국학연구』 46, 2017.
- 이정주, 「구한말 호적에 나타난 성별 · 연령별 인구 구조의 특징」, 『한국학연구』 46, 2017.
- 임학성, 「19세기 말 함경남도 端川郡 주민의 생활 양태 - 1896년 新滿面 '新式戶籍' 자료의 분석사례」, 『역사민속학』 66, 2024.

7. 함경북도

- 이정주, 「한말 함경북도 鏡城郡 호적표에 보이는 戶와 住宅 - 戶稅 부담과 관련하여」, 『한국학연구』 40, 2016.
- 이정주, 「광무 연간 북한 지역 여성의 호적 기재 양상」, 『역사민속학』 51, 2016.
- 이정주, 「광무호적에 보이는 '四祖 不知' 사례 검토: 첩, 과부, 환관의 기재 양상과 관련하여」, 『古文書研究』 50, 2017.
- 박희진, 「광무호적에 나타난 상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한국학연구』 46, 2017.
- 이정주, 「구한말 호적에 나타난 성별 · 연령별 인구 구조의 특징」, 『한국학연구』 46, 2017.

The Status and Value of Family Registers in North Korea Area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o ‘Early Modern Period (1896~1907)’

Lhim, Hak Seong*

The Joseon Dynasty’s system of family registration and household census can be described as well organized. The Joseon Dynasty conducted household surveys under the family registration system for five hundred years and compiled family registers as a result. From the founding of the country in 1392 until 1895, the family registry was conducted every three years, and from 1896, the family registry system was changed to a one-year cycle.

The Joseon Dynasty had more than 300 counties nationwide, and since family registers were compiled by county (郡) or subcounty (面), and three or four copies were compiled at a time, it is calculated that a considerable amount of family registers were compiled for more than 500 years.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only about 1,000 family registers from the Joseon Dynasty left in Sout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situation is different for family registers created after 1896 (new-type family registers “新式戶籍”), but the family registers created before that time (older-type family registers “舊式戶籍”) were concentrated in Gyeongsang Province (慶尙道) and Jeju Island (濟州島), and the research was bound to focus on these regions. Due to these circumstances,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family registers of some remaining North Korean regions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Inha University

have not been properly organized and researched.

Currently, there are 40 family registers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Hawaii) that were crea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including 4 older-type family registers and 36 new-type family registers. By province, there are 2 counties in Gyeonggi Province (京畿道), 4 counties in Gangwon Province (江原道), 6 counties in Hwanghae Province (黃海道), 5 counties in South Pyeongan Province (平安南道), 6 counties in North Phyongan Province (平安北道), 3 counties in South Hamgyong Province (咸鏡南道), and 2 counties in North Hamgyong Province (咸鏡北道), totaling 28 counties (4 counties with older-type family registers, 25 counties with new-type family registers, and 1 county with overlapping older and new type family register).

This paper aims to comprehensively organize and introduce the surviving family registers of the North Korean region. It will also emphasize that family registers are the best source for collective research on people groups.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be an important motive in building a foundation for collective biography studies in the North Korean region.

Key words : North Korea area, family registers, older-type family registers (舊式戶籍), new-type family registers (新式戶籍), bibliographic review, people groups, collective biography